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5·7 VOL.241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14회 부산 청소년 축제

부산예술회관 기획

이그나이트 : IGNITE

2025. 7. 5.(토)-7. 6.(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2025
youth
festival

경연 시상내역

대상 (1팀) 300만원

금상 (2팀) 200만원

은상 (3팀) 100만원

동상 (6팀) 50만원

참가상 (10팀) 30만원

주최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후원 부산일보사

국재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부산KNN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2025년 3월 - 11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시장

공연 19:00 / 전시 10:00 open

- 3. 5. (수) 국악퍼포머 청청 [UP이아 청청]
- 3. 26. (수) 춤패 배김새 [2025 을사년 춤패 배김새 새봄맞이 출판]
- 4. 9. (수) NS Band [시민을 위한 예술의 향연! 특별한 밤!]
- 4. 30. (수) 오페리움 한울 [장미꽃 가시 '카르멘']
- 6. 11. (수) 부산시민원드오케스트라 [감성 더한 즐거운 음악회]
- 6. 16. (월) ~ 6. 22. (일) 시선화 [꿈은 이루어진다]
- 6. 25. (수) 부산아이디발레단 [Essential]
- 6. 30. (월) ~ 7. 6. (일) 부산공예예술문화협회 [BE CRAFT!]
- 7. 28. (월) ~ 8. 3. (일) 홍민수 도예전 [법고창신]
- 7. 30. (수) 아띠클래식 [아띠클래식 미니 콘서트]
- 8. 25. (월) ~ 8. 31. (일) 부산남사회 포토클럽 [부산 사계의 미학]
- 8. 27. (수) 극단 우릿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는 뮤지컬쇼 '전화We복']
- 9. 8. (월) ~ 9. 14. (일) 부산문인협회 [시화전]
- 9. 22. (월) ~ 9. 28. (일) 진사우회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
- 9. 24. (수) 드 콤마 [배달의 콤마 '추억의 음악을 신숙 배달']
- 10. 29. (수) 영포레컴퍼니 [피노키오와 함께 음악 속으로~!]
- 11. 26. (수) 이바디예술단 [문화의 교차로에 선 '술가락 젓가락']

주최 |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의 | 051)631-1377 www.bsart.or.kr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실	122.57㎡
4층 전시실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JULY

7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문화가 있는 날_부산공예예술 문화협회 (BE CRAFT!)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아간)부산사진작가협회_기획 전 특강3, 051)631-4111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10시~12시	2 문화가 있는 날_부산공예예술문 화협회 (BE CRAFT!)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아간)부산사진작가협회 간사화, 051)631-4111 가아금(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점심버스킹	3 문화가 있는 날_부산공예예술 문화협회 (BE CRAFT!)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아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 50분 사진아카데미(4층회의실) 10시~11시 50분	4 문화가 있는 날_부산공예예술 문화협회 (BE CRAFT!)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5 젊음의축제 문화가 있는 날_부산공예예술 문화협회 (BE CRAFT!)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6 젊음의축제 문화가 있는 날_부산공예예술 문화협회 (BE CRAFT!)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7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8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10시~12시	9 가아금(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점심버스킹	10 (아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 50분 사진아카데미(4층회의실) 10시~11시 50분	11	12 공감엔터테인먼트 김용국 신곡 발표회 및 연주회 010-8566-3364, 15시
13	14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15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10시~12시	16 가아금(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점심버스킹	17 부산발도르프학교 발도르프교육예술제 010-3569-5444, 19시30분 (아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 50분 사진아카데미(4층회의실) 10시~11시 50분	18	19
20 유니버설폴코리아 챔피언십 010-4225-1210, 9시	21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2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10시~12시	23 가아금(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점심버스킹	24 (아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 50분 사진아카데미(4층회의실) 10시~11시 50분	25	26 비스텍스 난타공연 010-3393-5489, 18시
27	28 문화가 있는 날 홍수민 도예전 <범고창산>(3층,4층전시장) 051)631-1377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9 문화가 있는 날 홍수민 도예전 <범고창산>(3층,4층전시장) 051)631-1377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10시~12시	30 문화가 있는 날_아띠클래식 (아띠클래식 미니콘서트) 051)631-1377, 19시 문화가 있는 날_홍수민 도예전 <범고창산>(3층,4층전시장) 051)631-1377 가아금(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31 문화가 있는 날_홍수민 도예전 <범고창산>(3층,4층전시장) 051)631-1377 (아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댄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 50분 사진아카데미(4층회의실) 10시~11시 50분		



ART BUSAN MONTHLY VOL.241

2025 JULY 7

CONTENTS

권두칼럼

08 고평장, 예술을 품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의 진화 _ 최성필

예서제서

- 10 2025 부산예총 갈매랑축제
- 16 2025 해외 주요 인사 초청 K-Fellowship
- 18 국민의힘 미래부산정책단 '정책공감투어' 부산예총에서 개최
- 19 부산예총·라발스호텔 업무협약 체결
- 20 시모노세키시 문화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에 부산예총 초청
- 21 부산예술후원회 - 2025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 22 부산문화재단 - 부산바다도서관
- 24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부산공예예술문화협회전
- 26 제33회 부산한국화전
- 27 제29회 부산회화제
- 28 제13회 청년작가_OPEN MATCH展
- 30 영남성주굿소리보존회 제3회 정기공연
- 32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 청소년국악제
- 청소년시낭송대회



표지 _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특별초청작
헝가리 세계드현대발레단 <카르미나 부라나>
©이호형 사진, 부산국제무용제 사진 제공



학생그림공모전

찾아가는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 · 청소년예술어울마당

2025 청소년 K-POP 페스티벌

부산청소년음악회

제16회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39 김윤찬 19회 개인전

포토에세이

40 장전 이끼 계곡 _ 신현숙

수필의 뜰

44 나도별사초 _ 송명화

인물포커스

48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 이준 _ 정혜주

예인탐방

50 피아노 조율사 강규찬 _ 백근영

예술가열전 234

52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_ 박준영

손으로 쓴 문학

56 잣대 _ 박희선

들여다보기

58 무용/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_ 김혜라

62 미술/ 권상인의 '불타 20상도二+相圖' _ 정혜주

66 미술/ 김정명 'Yellow Line, 천인의 얼굴' _ 백근영

기획연재

68 건축과 서예Ⅲ - 한일 외교와 문명의 해상 플랫폼 조선통신사선 _ 이현주

72 부산에 '최고액 상금' 내건 국제마라톤대회 창설 검토를 _ 심수화

76 예총·전시·공연 뉴스

79 신간 안내

80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7월 통권 241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5년 6월 25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정혜주 객원기자_ 백근영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골프장, 예술을 품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의 진화

글 _ 최성필 (주)동부산컨트리클럽 대표이사

골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한때는 담장 너머 고요한 공간에서 소수만의 리그를 형성하던 골프장이 이제는 대중을 향해 활짝 문을 열었다. 골프장은 더 이상 '조용한紳사들의 스포츠'에 머물지 않는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골프 역시 참여형 스포츠로 진화하고 있다.

흥미로운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유행하는 여러 트렌드가 골프장까지 확산하면서 다양한 예술과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문화가 펼쳐지고 있다. 이제 골프장은 단순한 운동 경기장이 아닌 문화와 예술,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부산컨트리클럽은 '신神과 인간人이 창조한 예술'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만큼, 대운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연상케 하는 문양화단, 아름다운 조경과 조형예술 그리고 세계절마다 화려하게 변하는 한국 야생화와 조경수가 어우러져 있다. 곳곳에는 황수로 회장의 예술적 감각과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동부산컨트리클럽의 황수로 회장은 국가무형유산 제124호 궁중채화장으로, 평생을 한국 전통 문화와 예술 발전에 헌신해 왔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2019년에는 사재를 털어 동부산컨트리클럽 입구에 한국궁중꽃박물관을 설립하였다.

한국궁중꽃박물관은 조선왕조의 궁궐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장식했던 궁중 채화를 복원·전시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황수로 회장이 50여 년간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고문서를 연구하며 복원한 조선 궁중 진연의 채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하였다.

늘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부산컨트리클럽의 중심에는 황수로 회장의 열정과 고집, 그리고 예술적 감각이 자리하고 있다. 골프장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여기는 그의 남다른 예술혼이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골프장이 탄생할 수 있었다.

오늘날 예술적 감각과 창의성은 경영의 새로운 경쟁력이다. 『지속가능경영과 혁신』의 저자 도상호 교수는 예술문화 기반의 창의적 감성 능력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해법임을 강조한다. 미국 기업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빅테크 창업자들은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깊은 소양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는 경영자가 예술가처럼 일할 때 비즈니스에 활력이 더해진다고 말한다. 동부산컨트리클럽 역시 ‘기업 속의 예술창조’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예술과 문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골프장은 이제 스포츠를 넘어 예술, 문화, 자연, 전통이 어우러진 종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골프장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에 창의적 활력과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다. 앞으로도 골프장은 예술과 경영,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다.

2025 부산예총 갈매랑축제

2025. 5. 26. ~ 6. 1. 부산시민공원 다솜잔디광장

푸르름이 절정을 이룬 여름의 초입, 부산시민공원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축제 '2025 부산예총 갈매랑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시민들을 위한 예술체험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메인공연인 <예술토평>, 그리고 시민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생활예술인 노래가요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원의 드넓은 잔디밭에서 예술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무대 위 예술인들의 열정에 환호하는 관객들의 함성이 어우러지며, 부산시민공원은 축제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기민요



2025 부산에총 갈매랑 축제

주최 | 부산광역시 (사)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5.
5.26.(토) ~ 6.1.(일)
부산시민공원 다솔잔디광장

| 예서제서

5월 31일 다솜잔디광장에서 열린 메인공연에는 부산시 조유장 문화국장, 박희용 부산시의원, 오은택 남구청장,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 정광현 (주)포엠대표, 김명수 복지TV대표, 김정순 신라대학교 명예교수와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을 비롯한 각 협회 회장단이 참석해 갈매랑축제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했다.

테너 양승엽과 바리톤 최대우는 [아르고윈드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과 「Spanish Fever」를 오페라의 감성으로 전달했다.

팝색소포니스트 고민석은 케니지의 「Loving you」와 「붉은 노을」 「환희」 「라라라」까지 야외무대에서 솔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꼭 찬 에너지로 관객들을 열광하게 했다.

‘태권 트로트’ 나태주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팬심 가득한 열띤 응원이 다솜잔디광장을 가득 채웠다.



백광무용단



부산시 조유장 문화국장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



테너 양승엽, 바리톤 최대우, 아르고윈드오케스트라



팝색소포니스트 고민석



가수 나태주



1



2

- 1 이원주_The Beatles-Abbey Road 1969
 2 부산무용협회 3 부산음악협회
 4 부산사진작가협회 5 부산연예예술인협회
 6 부산무용협회 7 부산미술협회
 8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와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
 9 부산건축가회 10 부산문인협회
 11 부산차문화진흥원 12 부산연극협회



3



4

‘예술토픽 야외展’에는 이원주 작가의 「The Beatles-Abbey Road 1969」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부산무용협회의 부산시민대동춤 배우기는 시민들을 한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추게 했고, 화려한 무용 의상을 차려입은 이들은 그 모습을 추억하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부산음악협회 부스에 놓인 다양한 악기들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부산연예예술인협회의 드림 연주 체험은 음악의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충분했다. 부산사진작가협회는 사진 속 추억을 선물했고, 부산문인협회의 ‘시민 예술제 백일장’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다. 부산건축가회의 건축물 모형만들기에서는 많은 가족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집중한 모습을 보였다. 부산차문화진흥원에서 마련한 시원한 차는 시민들에게 처량함을 선사해 한낮의 더위를 식혀주고, 부산미술협회 실크스크린, 굿즈 제작하기와 부산연극협회의 가족한마당에도 많은 이들이 일상을 예술로 가득 채웠다.

/ 편집실



5



2025 해외 주요 인사 초청 K-Fellowship

2025. 6. 6.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한울집

문화체육관광부(정책관 김현준)가 주최한 '2025 해외 주요인사 초청 K-Fellowship' 행사에 프랑스 몽펠리에 [옥시타니 국립오페라하우스]의 발레리 슈발리에[Valérie Chevalier] 총감독과 멕시코 문화부 축제 총괄국장 마리아나 아이메리치[Mariana Aymerich]가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부산예술회관 한울집에서 열렸으며, 부산에 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오수연 회장을 비롯해 김인숙 수석부회장, 권성은 부회장(부산음악협회 회장), 강명옥 부산국악협회 회장, 남선주 부산무용협회 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전통예술의 현대적 확장과 문화적 포용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 받았다. 특히 발레리 슈발리에 총감독은 다음 시즌부터 고영일 소리꾼과 함께하는 판소리 기반 오페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시각 예술가와 협업해 무대 뒤편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등, 동서양의 미감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몽펠리에에서 시작될 이번 공연은 파리, 바르셀로나 등





마리아나 아이메리치
멕시코 세르반티노 페스티벌 전 총감독, 문화부 국장



발레리 슈발리에
프랑스 몽펠리에-옥시타니 국립오페라오케스트라 총감독

유럽 주요 도시 투어도 예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판소리의 구조와 의미를 설명하는 사전 컨퍼런스,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자막 제공 등 관객 접근성 또한 고려되고 있다. 슈발리에 총감독은 “매년 새로운 주제로 실험적인 판소리를 선보이고 싶다”고 말하며, 판소리의 장르적 확장성과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녀는 또한 오페라하우스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80% 이상이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몽펠리에 국립오페라하우스에는 청소부, 의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이 함께하는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4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 200여 명도 정기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예술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의 일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적 포용성 역시 중요한 가치로 실현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조끼, 수어 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체험과 오디오 해설, 자폐 아동을 위한 사전 공연 안내 등은 모두 ‘문화는 모두의 권리’라는 철학 아래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DJ 퍼포먼스와 드래쇼 역시 정기적으로 열려, 도시 정체성과 공연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세계 4대 문화예술축제 중 하나인 세르반티노 국제 페스티벌을 총괄해 온 멕시코 마리아나 아이메리치 문화부 국장은 2022년 세르반티노 축제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 한국의 공연을 관람했고,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여러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한국-멕시코의 예술문화 교류에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예술을 감상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통 판소리와 현대 오페라의 협업이라는 흥미로운 여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 편집실

국민의힘 미래부산정책단 ‘정책공감투어’ 부산예총에서 개최

2025. 5. 27. 오후 4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직능 단체를 직접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 실시한 국민의힘 미래부산정책단의 ‘정책공감투어’가 지난 5월 27일 부산예총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조승환 미래부산정책단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복조 원내대표, 성창용 기획재경위원장, 강철호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부산예총에서는 오수연 회장과 김인숙 수석부회장, 권성은(부산음악협회 회장) 부회장, 조성범 감사 외 각 협회의 임원진들이 함께 자리했다. 정책공감투어는 부산예술인의 애로와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장르별 주요 현안과 정책 제언을 깊이 있게 다루며 부산예술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부산건축가회 2026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국제건축가연맹(UIA) 및 유네스코(UNESCO)와의 협력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하고 전 세계 건축가들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세계건축도시, 부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

부산국악협회 여성국곡은 국악인들의 숙원 사업으로, 2026년에는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

부산무용협회 부산시립무용단의 신규 단원 충원과 부산무용수들이 부산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에 무용 전용 연습장을 만들고 무용분원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산문인협회 부산문학관 건립에 속도를 내야하고, 부산문학의 역사와 발전을 위한 아카이브 사업은 필수적이다. 『문학도시』의 종이책 발간은 지속되어야 한다.

부산미술협회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과 온라인 서비스를 확장해 부산미술의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 미술작가들이 직접 진행하는 아트페어는 작업-판매-결과 등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버팀돌이 되고 있으며, 대형 전시관 등 시설 기반이 필요하다.

부산연극협회 연극 전용 공연장과 비수기에도 공공 공연장을 활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부산항해양가요제’ 장소 선정에 부산시의 협조를 기대한다. 버스킹 장소의 지정과 대중가요박물관의 설립도 중요하다.

김인숙 수석부회장은 국악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지정됐음을 알리며, 외국인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민속예술인 국악이야말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정리_정해주

부산예총·라발스호텔 업무협약 체결

2025. 6. 23. 오후 4시 라발스호텔

부산예총(회장 오수연)과 라발스호텔(회장 채창호)이 지역의 예술문화 활성화와 문화융성을 위해 6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라발스호텔 채창호 회장과 조수봉 대표이사, 이현소 총지배인을 비롯한 10명의 관계자와 부산예총은 오수연 회장, 김인숙 수석부회장, 권성은 부회장(부산음악협회 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에는 ▲각 기관이 추진하는 예술문화 행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홍보와 협력 ▲부산예술문화 저변 확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공동 관심사 추진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정보의 교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라발스호텔은 2019년 부산 영도구에 문을 열어 부산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등 부산을 한눈에 조

망할 수 있는 최상의 전망을 자랑하며, 부산의 대표 호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예총은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온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예술 생태계와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오수연 회장은 “이번 협약이 예술과 시민을 더 가깝게 잇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야외 공연과 전시 등을 통해 순수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라발스호텔 채창호 회장도 “부산예총과의 협약을 계기로 예술문화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생을 도모하며, 오늘의 자리가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 편집실





시모노세키시 문화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에 부산예총 초청

2025. 6. 8. ~ 6. 10. 시모노세키시



시모노세키시 문화협회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6월 8일 시모노세키시 시물팰리스시-モールパレス에서 열린 기념식에 부산예총을 초청했다. 행사에는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과 김인숙 수석부회장, 부산무용협회 남선주 회장, 국악인 이나영, 윤정미 무용수가 참석했다.

기념식에 초대받은 부산예총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한국의 전통예술로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공연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리랑」과 경상도 민요 「뱃노래」, 그리고 진주교방굿거리춤을 준비해 발디딤과 손목 사위가 화려하고 기품 있는 예술성으로 주목받았다.

시모노세키시는 부산시와 해외 자매도시로 부산예총과는 부산예술제 등의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오수연 회장은 “앞으로도 두 도시가 예술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편집실

부산예술후원회 2025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3월 ~ 12월 김해국제공항,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산예술후원회(회장 강익구)가 올해도 '2025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으로 지역 곳곳을 찾아 나섰다. 이번 행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오후 3시, 그리고 동아대학교병원 로비에서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진행된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버스킹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며,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소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부산이 예술문화의 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연말까지 국악, 클래식, 발레,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문의_010-3940-3060 / 편집실

공항을 음악이 흐르는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김해공항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에는 양상을 필슈파스를 시작으로 뮤브양상블 등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했다. 대기 시간이 긴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는 음악회에 관객들은 귀를 기울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였다. 점심시간에 병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된 동아대학교병원 버스킹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까지 함께해 예술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활력을 얻고 일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월별	김해국제공항		동아대학교 병원	
3월	오페리움한울	3.12.	양상블필슈파스	3.17.
4월	도담뮤직	4.9.	국악퍼포머청청	4.21.
5월	골든양상블	5.14.	부산아이디발레단	5.19.
6월	뮤브양상블	6.11.	클래식기타동아리풍경	6.16.
7월	뮤직색소폰양상블	7.9.	부산오페라양상블	7.21.
8월	브이브라스	8.13.	위드유싱어즈	8.18.
9월	포르투나양상블	9.10.	창작국악그룹미르소리	9.15.
10월	이바디예술단	10.8.	오페리움한울	10.20.
11월	부산아이디발레단	11.12.	베니엔	11.17.
12월	Ensemble 9oodo	12.10.	포르투나양상블	12.15.



김해국제공항



동아대학교병원



도심 속 바다에서 즐기는 야외도서관

부산 바다도서관

2025. 6월 ~ 9월 민락수변공원, 해운대, 다대포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오재환)은 오는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일원에서 이색 독서축제 '2025 부산바다도서관'을 개최했다. '하루의 시작을 책과 함께'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행사는, 계절과 공간의 특색을 살린 야외도서관형 독서문화 플랫폼으로서 책과 예술,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민문화 경험을 제공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책을 읽는 장면은 이제 더 이상 상상이 아니다. 민락수변공원에서 시작되는 '부산바다도서관'은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진 열린 독서 공간으로 시민들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상반기 행사는 '일출도서관'이라는 부제로 열리며, 하루의 여명을 닮은 새로운 독서 경험의 시작을 알렸다. '여명' '물결' '빛' '시민의 책장' 등 7개 테마로 구성된 '북큐레이션 존'에는 2천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집어 들고 자리에 머물렀다. 광안대교와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며 앉을 수 있는 '리딩존'에는 의자가 마련됐고, 캠핑 감성을 더한 '북텐트 존'에서는 텐트 안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게 진행됐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도서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로그 라운지',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는 '책명 존(명독명글)'도 함께 운영되었다. 이는 독서를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 삶의 일부로 녹아들도록 이끌었다.



책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예술과 감성으로 확장된다. 축제 기간 동안 북토크, 예술교육, 공연, 명상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인기 작가를 초청하는 ‘북.톡.시(Book.Talk.City)’에서는 『천 개의 파랑』의 천선란, 『샤워젤과 소다수』의 고선경, 『혼모노』의 성해나 작가가 참여해, 삶의 고민과 상상, 그리고 위로를 담은 진솔한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었다. 부산 지역 작가들과의 대화인 ‘읽은대로’, 독서토론 프로그램 ‘북툼’, 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오감 독서 예술놀이’, 해변에서 진행되는 ‘힐링 요가 명상’ 등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콘텐츠도 다채로웠다. 밤이 되면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재즈, 클래식, 댄스 공연은 책의 여운과 예술의 감동을 더욱 깊게 해주었다.

‘부산바다도서관’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이기도 하다. 지역의 도서관, 서점, 출판사 등 52개 기관이 참여한 ‘B-북스팟’에서는 각 기관의 개성 있는 콘텐츠가 담긴 체험 부스와 이벤트, 독립출판물 전시가 펼쳐졌다. 이 외에도 ‘독서모임 지원(북캠프노마드)’ ‘퍼스널 책 추천(책한알)’ ‘필사 체험(필사존)’ 등 책을 매개로 한 소통과 연결의 경험을 시민에게 제공했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커피와 책을 함께 즐기는 ‘리드브루’, 시민 참여형 북마켓 ‘카붓세일’, 책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누리마켓’ 등이 마련되어 지역과 문화, 시민이 어우러지는 현장을 만들어냈다.

‘부산바다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행사를 넘어, 바다와 책, 예술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문화 실험이자 가능성의 장이다.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는 “부산바다도서관은 부산



만의 장점을 살린 B-컬처 콘텐츠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실내 도서관에서 벗어나 야외 독서환경을 체험하며 시민들이 책을 더욱 가깝게 느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해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독서문화축제인 부산바다도서관은 책과 예술이 하나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바다도서관’은 6월 ‘일출도서관’을 시작으로, 8월 해운대에서 ‘팝업도서관’, 9월 다대포에서 ‘일몰도서관’으로 이어지며, 계절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열린 독서문화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문의_ 051)745-7286~8 / 편집실

부산공예예술문화협회전

BE CRAFT!

2025. 6. 30. ~ 7. 6.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부산공예예술문화협회(회장 정경이)는 부산의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소재로 작업하는 부산 공예작가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이다. 이번 전시는 'BE CRAFT!'란 주제로 금속, 도자, 목공예, 옷칠, 섬유 장르의 작가 40여 명이 참여하고, 청년작가(김민지 박기원 박찬 옥한나 정소이 조효진) 초대전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도자공예는 김광수 김소영 김주희 김창희 김현식 박은영 박은정 백나리 이세훈 전광수 조영숙 표지현 하승연 한윤빈 홍찬효가 참여한다. 김창희는 전통 도예기법으로 다채로운 색을 조화시켜 현대적인 감각의 작품을 선보인다. 'Balloons'는 풍선의 둥근 형태에 사람의 얼굴을 삽입해 개성 있는 초형 작품이다. 정소이는 백토를 활용해 마치 공간에 드로잉을 하듯 유기적인 선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표지현은 점토에 유약과 옷칠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깊이 있는 감성으로 동산(洞山)을 표현한다.



금속공예는 고정재 김미선 김희원 남채린 박소영 신정임 안순주 이원주 이정민 이창원 정하옥 천은정이 참여한다. 은과 구리, 에나멜을 사용해 가을의 정서를 담은 천은정의 「Connect-그해 가을」을 감상할 수 있다.

목공예와 옷칠공예에는 고정미 김소연 김소영 김소운 오구환 이은지 임은지 정경이가 참여하고, 전통옷칠 기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아트퍼니처를 제작하고 있는 임은지의 「Before Moonlight_Y, B, V」가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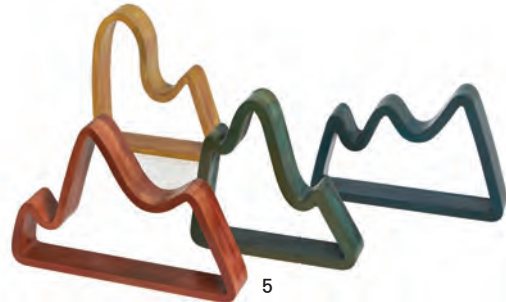
섬유공예는 김성연 박효정 이성은 이윤경 천은혜가 참여해 재료가 가진 환상적인 실루엣과 여러 텍스처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BE CRAFT!」전은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개최되며, 7월 5일과 6일에는 다양한 실을 재료로 하여 위빙 코스터를 제작하는 '제로웨이스트 위빙' 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술 체험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회 진행 예정이며, 중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고 예약제로 운영된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4



5



6



7

1 섬유_조효진 2 섬유_이성은 3 도예_정소이
4 도예_김창희 5 목칠_임은지 6 도예_표지현 7 금속_천은정

제33회 부산한국화전

부산·울산 현대한국화 기획 특별교류전

2025. 6. 16. ~ 22. / 7. 1. ~ 6.

부산시청 제23전시실 / 금련산역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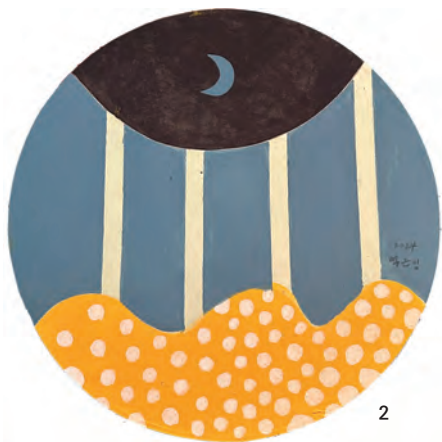
부산미술협회 한국화분과(분과회장 김현철)의 '제33회 부산한국화전'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부산시청 제23전시실에서, 7월 1일부터 6일까지 금련산역갤러리에서 두 차례로 나눠 릴레이 전시를 이어 간다. 이번 전시는 부산과 울산을 대표하는 한국화 작가의 수묵화, 채색화, 민화, 현대적 설치 작품 등 30호 이내의 규격으로 총 19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단지 두 도시의 공동 기획이라는 의미를 넘어, 전통 한국화의 정수와 현대적 감각이 교차하는 새로운 예술적 실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교류전은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흐름으로 엮어내 현대 한국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화가 지닌 선과 여백, 농담의 미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자유로운 표현과 실험정신이 깃든 작품들로 한국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김성희의 「쌍학도」는 순지 위에 분채와 먹으로 한 쌍의 학을 고요히 담아냈다. 나란히 선 두 마리 학과 자연은 절제된 붓질 속에서도 생동감을 잃지 않고 화면을 채운다. 백근영의 「점과 기호」는 장지 위에 수간 채색이라는 전통 기법으로 표현된 추상적 이미지로, 보는 이로 하여금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게 만든다. 정금순의 「파도의 숨」은 푸른 수묵채색으로 한지에 그려진 작품이다. 수평선 아래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자연의 찰나를 담은 듯, 푸른 바다의 시원한 숨결이 화면 너머로 전해진다.

부산한국화전 운영위원회는 “청년 작가와 한국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로 한국화의 저변 확대에 윤활유가 되고, 한국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문의_010-4850-2261 / 편집실



1 김성희_쌍학도, 순지에 분채, 먹, 142×72cm, 2025

2 백근영_점과 기호 Dots and Symbols, 장지에 수간채색, 아크릴, 오일파스텔, 원형지름50cm, 2024

제29회 부산회화제 동행 2025展

2025. 6. 10. ~ 15.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회화제'가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부산미술협회 서양화분과(분과회장 유선경)가 주최·주관했으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 부산미술협회(회장 최장락)가 후원했다. 1997년 창립 전시로 첫발을 댄 '부산회화제'는 올해 29번째 전시를 상반기 지역 미술계에서 단일 분야 최대 규모로 진행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원로 작가 29명을 비롯해 서양화분과 회원 205명, 비회원 작가 149명 등 총 386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 인원이 함께한 전시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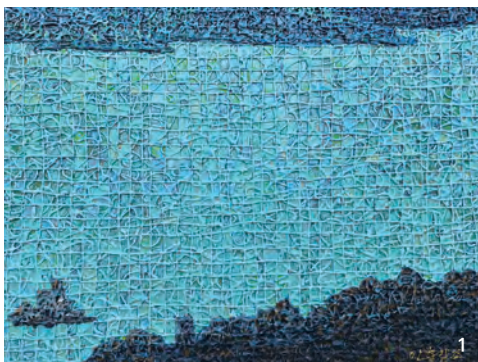
올해 '부산회화제'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동행 2025展'의 회원전과 비회원전의 동시 개최다. 비회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번 특별전은 기존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작품을 선보이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해 '동행전'에 참여했던 다수의 비회원이 이후 미술협회 회원 자격을 획득해 올해 본 전시에 참여한 점이 인상 깊다. '부산회화제'

가 예술가 등용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원로 작가들의 중후하고 깊이 있는 작품과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가 어우러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서양화의 현주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충길의 작품 「저 너머 바다」는 하늘빛이 감도는 물감을 넓게 펼친 뒤, 그 위에 푸른 계열의 물감을 굳혀 덧입히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중첩된 색채와 질감은 마치 바다가 숨 쉬는 듯한 입체감을 자아내며, 시선을 끄는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황종환의 「오래된 기억」은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콜라주 기법으로 완성된 추상화로, 과거의 단편적 이미지들이 화면 위에서 자유롭게 엉키고 흩어지며, 기억의 파편을 시각화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 미술인과 시민, 그리고 미래의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화합의 장이었다. 매년 개최되는 부산회화제는 원로 작가들을 정중히 예우하는 공식적인 무대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예술적 전통과 세대 간의 연결을 이어가고 있다.

문의_010-8541-7151 / 편집실



1 이충길_저 너머 바다, 53×41cm(10호)



2 황종환_오래된 기억, 10호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3회 청년작가_OPEN MATCH展

2025. 5. 20. ~ 6. 7. 금련산역갤러리

(사)부산미술협회(회장 최장락)가 주관하는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3회 청년작가_OPEN MATCH展'이 금련산역갤러리에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최됐다. 본 전시는 유망한 부산 청년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부(공예·조각), 2부(서양화·판화), 3부(서양화·한국화)로 나뉘어 진행됐다. 공모 형식의 청년작가_OPEN MATCH전은 매년 작품의 다양성과 변화를 꾀하며 부산 청년작가의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 박기원(공예)_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541-1
2 최세윤(조각)_PA-99 Fairy Bot 005 3 조효진(공예)_I-My-ME
4 옥진화(판화)_하이네켄-M1 5 김지우(서양화)_68번 버스
6 장유재(한국화)_夜雪

1부(공예·조각)는 공예와 조각 장르의 매체적 다양성이 두드러진 작품들로, 색깔으로도 각각의 특징을 잘 나타냈다. 최우수작가로는 박기원(공예)이 선정됐다. 작품은 자연물(돌, 나뭇가지를)을 매개체로 도자기와 결합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흙과 자연물의 조화는 지나간 시공간과 기억의 흔적들을 쌓는 방식을 통해 사유하고 탐구를 유도한다. 우수작가는 3명이 선정됐다. 최세윤(조각)은 낡고 부서진 도구, 기계, 장식품 등 잊혀 가는 것들을 캐리커처화한다. 미루나무에 레진과 아크릴을 이용한 '정크아트Junk Art'의 결합체로 전통 문양으로 장식하고 감정과 표정을 가진 의인화된 존재로 부각한다. 홍민수(공예) 작가는 '도시이미지'를 주제로 역사와 함께 쇠퇴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도시의 모습을 표현한다. 조효진(공예)은 섬유와 금속을 통해 자아에 대한 사유를 조형화한다. 개인의 내면적 경험을 시각 언어로 전환하고, 섬유의 유연성과 금속의 강성으로 느껴지는 이질감은 시간의 층위를 드러낸다.



2부(서양화·판화)는 서양화에서는 주제와 표현의 다양성, 판화에서는 매체 확장성이 특히 눈에 띄었다. 최우수작가로는 옥진화(판화)가 선정됐다. 작품은 인간의 이기심과 관점에 따른 가치판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구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현대사회 속 대량생산과 소비에 따른 폐허와 인간의 이기심들을 환경문제에 빚대어 표출한다. 결국, 현대의 소비문화에서 '가치'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수작가로는 김지우(서양화) 작가가 선정됐다.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 속 여러 가지 '얼굴'을 가면 또는 위장이라는 개념으로 표면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가상의 캐릭터 '앙마'는 인간의 일상에 녹아든 존재로, 현대인의 욕망을 투영한다.

3명, 우수작가는 4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추후 시상과 함께 우수작 특별 전시와 릴레이 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청년작가전은 어느덧 올해로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본 전시를 통해 부산 청년작가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문의_051)632-2400 / 편집실



4

에 적용함으로써 결국에는 상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사유를 관객에게 던진다.

전시 개막일에는 선정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세계와 예술적 철학을 직접 공유하는 '아티스트 토크'가 함께 진행됐다. 전시 공간은 작가의 주요 작품과 아카이빙 형식의 배치로, 관람 시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이 쉽게 구성됐다.

이번 청년작가_OPEN MATCH展에는 최우수작가는 총

3부(서양화·한국화)에서는 서양화·한국화의 순수미술 장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주제의 다양성과 표현이 잘 어우러졌다. 최우수작가로는 장유재(한국화)가 선정되었는데, 작가는 '한국적인 것'의 본질적 질문을 탐구하고,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시각화한다. 특히 표현적 부분에서는 '이름'의 개념을 화면 속 풍경과 이야기



5



6

영남성주굿소리보존회 제3회 정기공연
판板여는 소리
<말소리 향내나고! 걸음걸이 꽃만피소!>

2025. 6. 18.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6월 18일 수요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이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7시 30분이 되자, 무대 위에 올려 퍼진 첫 장단은 고요한 공기를 갈랐고, 객석은 어느새 전통과 창작이 교차하는 무대로 빠져들었다. 영남성주굿소리보존회(대표 조감용)가 선보인 <말소리 향내나고! 걸음걸이 꽃만피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정신을 온몸으로 전하는 의식이었다.



‘영남성주굿’은 본디 정월대보름 무렵, 집터를 고르고 풍요를 비는 민속의례로 불리며, 삶과 연결된 소리로서 오랫동안 전승돼 왔다. 이번 공연은 그 전통의 깊이를 기반으로 하되, 오늘날의 신선한 해석과 현대적 감각을 입혀 관객에게 보다 생생하게 다가갔다. 특히 공연의 부제이자 주요 가사인 ‘말소리 향내나고, 걸음걸이 꽃만피소’는 굿판에서 예술가가 내는 몸짓과 음률,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복을 부르는 향기이자 꽃임을 상징한다.

프로그램은 세밀하게 짜였다. 아쟁과 대금이 병주하는 첫 순서에서부터 이미 소리 속에 ‘향내’가 묻어났다. 조갑용과 김동현의 호흡은 전통 선율의 애절함과 생기를 담백하게 풀어내며, 객석에 잔잔한 집중과 긴 여운을 퍼뜨렸다. 이어진 경기민요와 승무는 각각의 감성과 신명을 품은 채 무대의 열기를 높였고, 위촉 초연작 <영남성주굿소리를 위한 멜로디>는 다양한 악기와 장단이 어우러지며, 복을 비는 굿소리를 현대적으로 풀어내 깊은 인상을 남겼다.

클라이맥스 무대로 가기 전, 사회자 박성희의 깜짝 무대는 관객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다. 부산시 문화재위원답게 프로다운 무대 매너로 혼자만의 목소리로 공연장을 압도했고, 「아리랑」과 같은 친숙한 판소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며 흥을 돋우었다. 무대의 절정은 <앓은반>과 <판굿>에서 절로 터졌다. 네 악기의 정교한 어우러짐과 상모놀이, 장단, 입놀림, 놀이 동작까지 고루 담긴 <판굿>은 ‘보는 음악’의 진수를 선사했다. 특히 열두발상모 돌리기는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일반적인 상모놀이도 충분히 볼거리가 많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긴 길이의 열두발상모를 관객석을 향해 펼친 후 회전시키는 퍼포먼스는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며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조갑용 대표는 일흔을 넘긴 나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경쾌한 몸놀림을 선보이며, 신명에는 나이가 중요치 않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마지막 장단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환호가 아낌없이 터져 나왔다. 조갑용 대표는 오랜 시간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장인이자, 스스로를 ‘문의 소리’로 빛어진 사람이라 말한다. 그의 예술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전통에 깃든 ‘사람의 마음’을 오늘날의 청중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그 메시지는 결코 과장되지 않으며, 진심으로 조심스레 내뿜는 숨결에 가깝다.

이번 <판여는 소리>는 ‘2025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예술지원작’으로 선정되어 더욱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구성, 다양한 장르 간의 조화, 그리고 굿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동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메시지다. 예술은 시대를 넘어선다. 이날 공연은 단지 ‘과거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 쉬는 ‘현재의 복’이었다. 무대 위에서 피어난 말소리와 걸음걸이는, 그날 밤 분명 향이자 꽃이 되었다.

문의_010-2596-6740 / 편집실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청소년국악제 우리음악의 비상을 위하여

2025. 5. 17.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올해 '청소년국악제'는 국악의 맥을 잇는 청소년 국악인들의 생생한 호흡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특히 이번 무대는 경연이 아닌 축제로 진행되었으며, '부산국악대전'을 통해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청소년들이 초청되어 함께했다.

‘피어오르다’ 첫 무대는 박시완(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채상선 반설장구」였다. 머리에 쓴 상모가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울동은 장단과 어우러져 단순한 리듬감을 넘어서는 경쾌함을 자아냈다. 가볍지만 힘이 실린 몸놀림은 인상 깊은 무대를 완성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전통무용의 다채로운 매력을 감상할 수 있었다. 지연수(목포정명여자중학교)의 「검은 해, 갯을 쓴 여인」, 김경현(브니엘예술고등학교)의 「화랭이춤」, 김서윤(경주 동방초등학교)의 「소고춤」은 전통무용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무대를 진지한 에너지로 압도했다. ‘솟아오르다’ 무대는 가야금 병창의 무대였다. 박단아(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심청가」, 박권희(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수궁가」, 김서진(포항 환호여자중학교)의 「홍보가」는 탄탄한 병창 실력으로 고전 속 장면을 생생히 그려냈다. 이어 함께 부른 「내 고향의 봄」에서는 세대를 초월한 전통의 감동이 전해졌다. ‘날아오르다’ 무대에서는 김형준(해

금·광주예술고등학교), 신이나(해금·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김소희(가야금·서라벌여자중학교)가 각각 산조를 연주했다. 각기 다른 유파의 산조가 악기를 통해 풀어지며, 국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관객에게 전달했다. 마지막 「남도굿거리 합주」는 다양한 악기의 어우러짐으로 국악의 흥과 멋을 한껏 끌어올렸다.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이들의 수상 이력만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가 무색할 만큼 성숙한 기량과 전통에 대한 애정, 자신만의 해석이 어우러진 무대는 국악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했다.

이날 공연은 단순히 뛰어난 기량을 뽐내는 자리를 넘어,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이 각자의 감각과 해석을 더해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에너지를 전하는 무대였다. 서로 다른 색깔의 공연이 어우러져 하나의 흐름을 이루었고, 그 안에는 각자의 개성과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모두 제31회 부산국악대전 초·중·고등부 대상 수상자로 구성되어, 국악의 전통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 편집실

- 1 김서윤(경주 동방초등학교)_소고춤 2 김경현(브니엘예술고등학교)_화랭이춤
3 박시완(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_채상선반설장구
4 신이나(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_해금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청소년시낭송대회

2025. 5. 17.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낭송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다. 절제된 감정을 목소리에 싣고 행해지는 낭송은 곧, 시에 담긴 시인의 마음을 가장 힘 있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무대 위 청소년들은 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청중에게 들려주었고, 그 시는 이내 종이에 적힌 시와는 또 다른 감성으로 다가왔다. '청소년시낭송대회'는 올해도 부산예술회관 회의실을 가득 메운 청중들과 함께했다. 각기 다른 색을 지닌 청소년들의 시 낭송을 응원하고 감상하기 위해, 회의실이 전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들이 현장을 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 없이,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낭송에 귀를 기울였다.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참가자들은 고전시부터 현대시, 자작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을 자신만의 해석과 목소리로 선보였다.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낭송은 시가 단지 '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될 때 더 많은 사람 사이에 살아 숨 쉰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중등부 대상은 신호현의 「한글 반포」를 들려준 마일로(시아공동체학교)가, 고등부 대상은 헤르만 헤세의 「높은 산 속의

저녁-어머니께」를 낭독한 최수빈(부경고등학교)이 품에 안았다. 그 외에도 황지우, 윤동주, 김지하, 정호승, 김소월, 박재구 등 익숙한 시인의 작품들이 청소년들의 낭송을 통해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왔다. 특히 신정현(부산경호고등학교)은 자작시 「영원한 사람」을 낭송해 눈길을 끌었다. 직접 쓴 시를 무대 위에서 낭송한다는 건 시를 쓰는 이의 용기이자, 청중에게 마음을 여는 고백이었다.

시 낭송은 문자로 기록된 시를 목소리로 되살리는 예술적 행위로, 누군가의 시를 자기 목소리와 감성으로 다시 숨 쉬게 하는 일이다. 이날은 문학이 공연이 되는 순간을 선사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감탄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조용하던 회의실은 어느새 열정으로 가득찬 무대가 되어 있었다. 이날, 수상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대에 오른 모두는 시를 통해 마음을 나눈 예술가였다. 이 순간의 울림은 오래도록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 편집실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2025. 5. 19. ~ 5. 24.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 1 부산시장상_주하원
- 2 교육감상_장하은
- 3 예총회장상_황지현



미래 예술인을 꿈꾸는 예비 미술작가들의 면면을 미리 볼 수 있는 부산미술협회(회장 최장락)의 '학생그림공모전'이 수채화, 한국화, 파스텔화, 이미지디자인, 서예, 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24점의 우수작과 입선작을 선보였다.

부산시장상을 받은 주하원의 작품에서는 물고기와 인간을 소재로 전사(戰士) 느낌을 강조하며, 선묘와 문양, 콜라주 기법이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교육감상을 수상한 장하은의 작품은 수채화로 푸른 꽃잎들 속 고양이 한 마리의 사실적 묘사가 인상적이며, 특히 상단 배경 묘사는 모네의 「수련」을 연상케 하는 빛의 오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김리원의 작품은 파스텔로 자연 속 사물을 그리는 본인의 모습을 표현하며, 동화 속 주인공을 투영했다. 예총회장상을 받은 황지현과 정재희의 작품은 판화와 수채화 작품으로 각 장르적 특성을 살려 자연(바다)을 주제로 삼아, 색감과 표현에서 배경과 인물 간 정적인 풍경을 묘사하고, 파도의 거침을 새와 함께 강조하고 있다.

우수작 외에도 모든 수상작은 전체적으로 뛰어난 묘사와 창의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부산 미술계의 미래를 기대케 했다.

/ 편집실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찾아가는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 청소년예술어울마당

2025. 5. 9. / 17. 다솜아트홀, 백양문화예술회관

부산연극협회(회장 이정남)가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청소년예술어울마당'이 5월 9일 다솜아트홀과 17일 백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찾아가는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에서는 가족인형극 <초록이의 낚시 여행>이 무대에 올라, 아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공연 중 아이들은 질문에 쩌쩍하게 답하며, 공연장에는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이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함께 상상하고 소통하는 예술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청소년예술어울마당'에서는 [극단 판플]이 2D 캐릭터로 분장해 청소년 관객이 작성한 카툰을 바탕으로 배우들이 즉흥 퍼포먼스를 펼치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 <판타스틱 카툰>을 선보였다. [극단 우릿]은 <뮤지컬 갈라쇼>를, [스타플레이어]는 <오레스테스>를 공연해 청소년들을 연극의 세계로 이끌었다. 초청 공연에는 [해운대글로리아어린이합창단]과 [카오스]가 참여해 청소년들의 화려한 축제를 더욱 빛냈다.

연극 관람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체험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며, 창의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이야기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신만의 생각을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예술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다양한 공연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만의 꿈과 끼를 발견해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시간이었길 기대한다.

/ 편집실

극단 판플_판타스틱 카툰



스타플레이어_오레스테스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2025 청소년 K-POP 페스티벌

2025. 5. 24.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가요 대상_석주영

연예인 지망생 100만 명의 시대가 도래한 지 이미 오래다. 청소년들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과 뛰어난 실력, 넘치는 끼로 무장 중이다. 부산연예예술인협회(회장 안규성)에서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2025 청소년 K-POP페스티벌' 무대를 마련했다. 가요와 댄스 부문으로 치러진 이번 경연대회는 가히 '무대 쟁탈전'이라 할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위한 청소년들의 갈망으로 가득 찼다.

댄스 부문은 9팀(1팀 불참), 가요 부문에서는 10팀으로 총 19팀(개인 포함)이 참여했다. 대상은 「Devil may cry」의 음악에 맞춰 완벽한 군무와 디테일한 감정까지 잘 살린 디스펙트럼(임해고등학교 박정현 외 7명)과 「Raise Up The Flag」를 통기타 연주와 섬세한 가창력으로 선보인 석주영(따라도어 학원)이 차지했다. 금상에는 「걸어」를 여전사의 분위기로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한 어센디언스(영운중학교 임성은 외 4명)와 유일하게 트로트 장르로 참여해 「천년학」을 구성지게 소화해 낸 송나운(김해 어방초등학교)에게 돌아갔다. 「Momma I Hit A Lick」을 걸스킵으로 독무대를 가진 주서현(분성고등학교)과 「사계」를 원석

과 같은 목소리로 담담히 부른 김서영(명지중학교)에게는 은상이 주어졌다. 동상은 김태은(영운고등학교), 이지우(브니엘예술고등학교)가, 장려상은 최시우(김해정원고등학교), 변윤솔(경일고등학교)이 받았다. 마지막으로 인기상에는 실력 못지않은 무대 매너를 겸비한 최예린(김해가야고등학교), 조시환(남문초등학교)이 수상했다.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노명호 심사위원장은 “심사기준으로 는 음악성과 재능, 감정 표현, 관객 호응도, 가창력 등으로,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임하며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참가자에게 상을 수여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가요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석주영은 싱어송라이터의 가능성으로 기타의 코드 실력과 가창력이 우수했으며, 금상을 수상한 송나운 학생의 무궁무진한 재능에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된다”며 평했다. 가요에서는 R&B선곡이 대부분 이었고, 댄스에서는 힙합이 주를 이뤄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예년에 비해 아쉬움을 남긴 페스티벌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 편집실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부산청소년음악회

2025. 5. 20.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부산청소년음악회'가 5월 20일(화)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렸다. 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운)가 주최한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이 직접 무대 위에 서서 클래식과 전통 음악의 울림을 관객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무대에는 '제51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수 입상자들이 올랐다. 이번 음악회는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성악과 관현악, 국악, 양상블 등 다양한 장르에서 청소년 연주자들이 각자의 재능을 선보였다. 각기 다른 악기와 목소리로 빚어낸 다채로운 음악은 클래식이 지닌 스펙트럼의 넓이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어린 나이라고 믿기 힘든 집중력과 깊은 해석을 담아낸 이들의 연주는 객석의 마음을 움직였고, 끝이어서 진심 어린 박수를 자아냈다. 도혜빈의 거문고 연주는 '전통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부드럽게 걷어내고, 낮설지 않게 다가와 관객의 귀에 자연스

럽게 스며 들었다. 이어 김민호(바순), 안유이(첼로), 서울리(성악), 서한주(트롬본), 김태경(플루트)의 무대가 차례로 이어지며 독주의 매력을 깊이 있게 보여주었다. 각 악기의 음색은 제각기 개성을 지니면서도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흐름 속에서 관객과 감정을 나누고 교감했다. 루티에 콰르텟(피아노 정현서, 바이올린 박로이·이연우, 첼로 김이슬)의 무대는 양상블의 조화로움을 선보이며 공연의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무대는 [유코유스윈드오케스트라]의 합주로 장식됐다. [United Korean Orchestral] 산하의 유코유스윈드오케스트라는 심장병 등 난치병 어린이 후원이라는 창단 취지를 바탕으로, 음악을 통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단체다. 이날 무대에서는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삽입곡 'Gurenge'처럼 친숙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관객 가까에서 호흡했다.

/ 편집실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제16회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2025. 5. 24. 오후 1시 30분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꽃을 가까이 즐기는 일상의 문화가 건강한 미래를 열 수 있다. 이에 부산꽃예술작가협회(회장 최정애)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들아, 꽃과 함께 놀자'를 주제로 한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 23명, 중등부 14명, 고등부 16명으로 총 53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각자 배부받은 생화를 이용해 초등부 1~3학년은 꽃바구니를, 초등학생 고학년부터는 폭 50cm, 높이 100cm 내외의 규격으로 자유롭게 꽃다발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꽃꽂이를 접해 본 학생들은 꽃의 잎과 가시를 다듬는 것부터 낯설어했지만, 꽃의 높이를 조절하고 매듭을 짓는 과정까지 집중력 있게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는 꽃다발의 조형성, 균형, 독창성, 기술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대나무 속대로 구조물을 만들고 꽃을 엮

어 대작을 완성한 고등부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탄탄한 심사평이 이어졌으며, 단순한 행사성 대회가 아니라 앞으로 꽃예술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도 아낌없이 전했다. 부산시장상인 대상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세영(남산고등학교)이 차지했다. 대나무 속대를 둥근 원형으로 감아 꽃다발을 만든 김세은(세연고등학교)이 금상을, 매듭 부분이 우수하고 안정감 있게 완성한 유혜지(세연고등학교)가 은상을 수상했다. 중등부에서는 김도연(덕포여자중학교)이 금상, 이나연(덕포여자중학교)이 은상을 받았으며, 초등부에서는 김서하(물금초등학교)가 금상, 정승우(대연초등학교)가 은상을 수상했다.

최정애 회장은 “청소년들이 꽃을 통해 나와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일상을 꾸려가길 바란다”라며, 부산 예술문화의 주축이 될 학생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 편집실



김윤찬 19회 개인전

青春 - 鳳凰山下 (청춘 - 봉황산 아래에서)

2025. 5. 7. ~ 13. 쓰촨예술과학대학四川文理学院 미술관

김윤찬은 중국 쓰촨성에서 열린 열아홉 번째 개인전 ‘青春 - 鳳凰山下’에서 수묵화 작품 30여 점을 발표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9월부터 1년간 쓰촨예술과학대학에서 외국인 전문가 교수로 재직하며 제작한 신작으로, 현대 수묵화의 확장된 표현 세계를 담은 ‘청춘青春시리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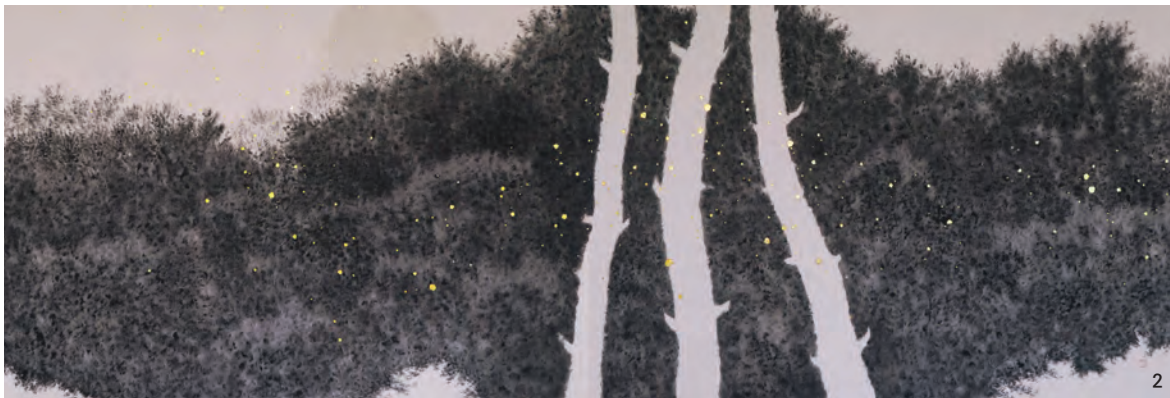
쓰촨예술과학대학이 주최하고 다조우시미술협회와 515 예술창작지구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기업 대표, 경제계 인사, 예술 애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윤찬의 작품은 천연 아마 천의 거친 질감 위에 송연묵을 갈아 삼일 정도 묵힌 초목焦墨과 멧돼지 목덜미의 갈기털로 만든 뽀뽀한 저중필猪鬃筆을 사용해 독특한 갈필효과가 돋보이는 소나무 형상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수묵화 작업에서 보기 드문 금박金箔을 활용해 사람과 자연의 교감과 공존에 대한 감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미술평론가이자 쓰촨예술과학대학 미술관장인 덩쉬鄧旭는 전시 서문에서 “천연 아마천 위에 남은 진하디진한 초목의 붓질 흔적과 반짝이는 금박의 별빛이 서로 교차하고, 달빛 아래 솔바람 소리의 고요함과 갈라진 줄기의 거친 자국이 함께 공명할 때, 관람자가 마주하는 것은 단지 소나무의 형상이 아니라 현대적 문맥 속에서 재해석된 동양 문명의 지혜로운 빛이 될 것이다”라고 평했다.

김윤찬 교수는 부산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중국 중앙미술학원 중국화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홍익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산, 베이징, 서울, 교토 등 국내외 각지에서 500회 이상의 전시에 참여했고, 한중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의 중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편집실

1 青春 - 鳳凰山下 36, 38×38cm 2 青春 - 鳳凰山下4, 130.3×387.8cm



장전 이끼 계곡

해마다 이맘때면 이끼를 찾아 떠난다.

고요하고 깊은 계곡 속에

맑은 물소리와 더불어 푸르른 이끼들이 싱그러움을 더한다.

서너 번 방문 만에 만난 푸르른 장전 이끼 계곡.

참 신비롭다!!

아기자기한 돌들 위에 피어난 이끼들이 여상의 부드러운 손길 같다.

글 사진 신현숙 부산사진작가협회 사업 간사







나도별사초

눈물 냄새가 난다. 이름에 '나도'라니. 별난 앞가지를 붙여 아류라는 뜻을 부여하면서 아무래도 좋아 식의 정체성에 가뒀 버렸다. 하도 종류가 다양하고 비슷한 것도 많으니 명명의 어려움이야 말해 무엇하랴마는 어찌 인간힘을 쓰며 따라붙으려 애쓰는 꼴을 이름으로 받았다는 말일까. 산책길에 난과 대의 성질을 다 가진 듯한 여원 식물이 무성한 풀밭을 만났다. 힘을 주어 뽑아낸 듯 잎이 날씬하게 쪽 쪽 뻗었다. 나도별사초 마을에서 생각에 잠긴다. 문학강의를 마칠 즈음, 직원이 시화를 한 묶음 가지고 와서 우수작 1편을 뽑아달라고 부탁하고 갔다. 한글교실에서 시 쓰기를 한 모양인데 시상을 할 계획인가 보았다. 정성스레 꼭꼭 박아 쓴 손글씨가 정신 차리고 잘 읽으라는 요청 같아 자세를 바르게 했다. 배움에 대한 고마움과 가슴 벅참을 주제로 한 시가 대부분이다. 천천히 읽어가는데 가슴뻐가 뻐



근하다. 이런 시들에 어찌 우열을 논할 수 있겠나 하면서도 세 편을 골랐다. 빨간 펜으로 가능하면 모두 시상하면 좋겠다는 메모를 남겼다. 성함은 모르지만 늘 인사하는 할머니들의 글도 이 안에 있을까.

학기 초의 일이다. 오전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뒷문 밖이 시끌시끌하였다. 총대가 나가더니 잠잠해졌다. 식사하러 가다가 아래층 계단참에서 세 분의 할머니를 만났다. 한 글교실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조용히 하느라 여기 내려와 계신 것 같았다. 오후수업인데도 벌써 등교하셨냐고 했더니 부탁이 있다며 꼭 제시간에 강의를 마쳐달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청소하고 예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는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싶었다. 마침 가지고 있던 시집을 드렸더니 받으신 분이 너무 기뻐하셔서 민망할 지경인데 내 뒤통수에 “나도…”라는 말이 따라오는 것 같아 못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음 주에 시집을 챙겨 가져 더 드렸는데, 책을 자주 나누는 편이지만 그런 환호를 대접받기는 처음이었다. 인터넷에서 보는 문해과정 학생들의 시는 맑고 깊다.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림을 보듯 가만히 들여다보게 된다. ‘처음으로/ 막내한테 문자를/ 써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아 본 아들이/ 전화해 왔습니다// “……”/ 아들은 목이 메어 말을 못 하고/ 나도 덩달아/ 목이 맵니다//’ 군대간 아들과 이제 글을 쓰게 된 어머니의 애처로운 정경에 왈칵 치받는 감정을 어찌지 못하겠다. ‘책보 메고 학교 가는 친구들 부러워/ 담 모퉁이 숨어 흘린 눈물’ 같은 시구를 읽으며 훌쩍이다가 ‘선생님 감사함미다’에 이르자 평생 가르치는 걸 업으로 한 내 가슴에 동종 소리가 메아리친다.

할머니들은 배움이 고픈 분들이셨다. 그분들이 평생 손에 쥐고 싶었던 것은 연필이지 않았을까. 컴맹은 안 된다고, AI맹이어도 불안하다며 너도나도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을 때 ‘나도 학교 가고 싶어 울던’ 분들에 대한 시선은 박했다. 공부에 소질이 있으나 없으나 대학교육이 필수처럼 되어있는 세상이다. 실력 상관없이 고등교육까지 받는 터라 문맹이란 말은 생소하였고, 어찌다 글 모르는 분을 알게 되어도 연세 많으니 그러려니 할 따름이었다. 전쟁과 가난, 남존여비의 굴레, 희생이란 가시관, 그런 것 말고 그분들이 글을 배우지 못할 무슨 사연이 있었으랴. 일곱 살 때부터 평생 지계를 지고 사셨다는 어느 할아버지의 시 속한 구절 ‘말 못 하는 지계, 글 모르는 나’는 강력한 대구를 이뤄 내 의식의 지면에서 불쑥 댄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도’는 최소이지만 최고의 소원이 된다.

한글교실계의 스타는 단연 칠곡할매들이다. 여든 넘어 한글을 배워 이름 석 자를 쓰게 되고, 시를 썼으며, 나아가 컴퓨터 글꼴까지 등록했다. 그들이 작년에 낸 시집 『시가 뭐고?』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중 시 네 편이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장흥 할머니들이 펴낸 『할매들은 시방』, 군산 할머니들이 펴낸 『할매 시작時作하다』를 읽다 보면 감정이 메마른 나도 순정한 가슴앓이를 하게 된다. 세상을 이리 볼 수 있구나 싶고 소중한 게 무엇인가 싶어 서다. 할머니들이 쓰는 서러운 낱말, ‘까막눈’에 이르러 가슴이 콕 막힌다. 글로 나를 세상 앞에 세우고, 글로 직업을 삼는 내가 어릴 적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내 삶은 어떠했을까.

사초의 학명 Carex는 잡초나 야생의 풀이라는 뜻을 가진다. 홍수를 막아 땅을 지켜내며, 곤충과 새들을 먹이고, 여러 미생물과 생물들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습지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우리가 잡초라 부른 그들의 힘이 컸다. 세모진 줄기 속을 짝 채운 채 곳곳하게 서고자 노력한 그들에게 빚진 생물들은 오죽 많을까. 개발과 조경이란 이름으로 인간이 그들을 밀어내고 얻어낸 것은 어쩌면 그들의 인내와 묵인 덕분이었다. 전국에 분포한 이백여 한글교실 학생들의 삶을 사초에 묶어 본다. 잡초란 하찮은 이름이 아니고 고귀한 이름이라 해야겠다. 할머니들을 ‘나도별사초’라 부르고 싶다. 평생 일에 묶여 허리는 굽었지만 이제라도 ‘나도’를 외치며 배움의 거울을 닦는다. 아득한 세월은 내려놓고, 매주 대학 캠퍼스를 거닐며, 친구들과 함께 한글을 익히고 세상을 배운다. 나이로만 치자면 허무가 들어설 동공에 기쁨이 찰랑댄다. 이제야 배우는 글자와 문장이지만 나도별사초 이삭처럼 통실한 열매로 나날이 익어갈 것이다. 이제 그 혹독한 파란의 강을 건넜다. 할머니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나도별사초의 경지에 이르러서도 글을 다루는 기쁨을 놓지 않으실 것만 같다. 이윽고 본인 이름 석 자 붙인 별이 되어 힘차게 날아오르실까. 온 힘을 다해 따라붙었던 ‘나도’를 넘어 ‘나는’으로 당당하게 시인도 되고, 수필가도 되고.

접사한다. 카메라 렌즈 속에 나도별사초가 수수한 초록 별 모양 꽃 덩어리를 자신 있게 밀어 올린다. 까락을 잘게 떨며 별이 둥그렇게 떠오른다. 쪽 뺨은 앞에 힘이 넘친다. 외떡잎 식물의 부드러움과 섬세한 질감을 가졌지만 쫄대가 남다르다. 초록빛 잎맥들이 얼비치는 잎

잡초란
하찮은 이름이 아니고
고귀한 이름이라 해야겠다.
할머니들을
‘나도별사초’라
부르고 싶다.



을 들여다본다. 작고 가는 몸매지만 기상이 넘치는 풀을 손가락으로 몇 번 건어 올리자니 피부에 녹색 물이 둘 것 같다. 책가방을 든 할머니들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싱싱한 초록이 어울리지 싶다. 살면서 불만이 오죽 많았던가. 할머니 학생들의 유쾌한 재잘거림은 나를 부끄럽게 한다. 살아내기를 해낸 분들이 하는 말씀은 마디마다 진언 같다. 시화 사진을 찾아 나도면 어땡고 너도면 어떠냐며 찬찬히 박아 쓴 할머니들의 시를 나뭇 근사하게 낭독한다. 귀여겨듣는 나도별사초 학생들이 위로 명주실 같은 햇살이 곱다.

글_송명화 수필가

예술로 도심을 확장하는 프로젝트,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적 플랫폼 구축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 **이준**

신임 이준 집행위원장은 지난 5월 14일 취임하여 2027년 5월 13일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부산 브니엘고와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학석사와 미술비평전공 미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삼성문화재단에 입사하여 호암미술관 현대미술부장과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리움미술관 부관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중앙일보에 '이준의 인사이드 아트' 미술 칼럼을 연재 중이다.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산비엔날레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부모님 거처가 부산에 있어서, 고교 시절부터 부산은 저의 청춘의 경험에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부산비엔날레 현장평가위원, 심사위원 등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산에 관심을 가져왔고, 도시의 성장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리움미술관에서의 국제적 경험뿐만 아니라, 비평적으로도 주요 관심 분야가 '비엔날레의 문화정치학'이었기에 부산비엔날레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이 가진 문화 지형의 특이점과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국전쟁의 기억을 품은 역사도시이자 해양도시로서의 지정학적 특성, 그리고 콘텐츠를 갖춘 문화관광도시의 다양성을 가진 점이 부산의 매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부

산국제영화제는 부산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와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비엔날레의 연합, 그리고 건축, 디자인, 미디어 아트의 통합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리움미술관 퇴직 후 파리에서 한 달간 체류한 경험을 통해 문화 도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산광역시에도 미래디자인본부가 있어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지만, 외부자의 시선에서 볼 때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아쉬움이 납니다. 이기대공원에서 추진 중인 '아트 파빌리온'과 같은 프로젝트가 도심이나 해변가에서도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산비엔날레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글로벌 미술계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체성이란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재구성되고 재조직화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문화적 태도를 강조하며 지향하고 있습니다. 차별화의 관점은 해양과 문화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세계와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적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의 문화적 특수성과 장소성을 더욱 개발하고,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위원장으로서는 행사의 기본 구상과 운영뿐 아니라 홍보·마케팅, 관람객 개발, 국제교류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2026년 비엔날레에서는 지역 유대관계와 큰 틀에서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주목하거나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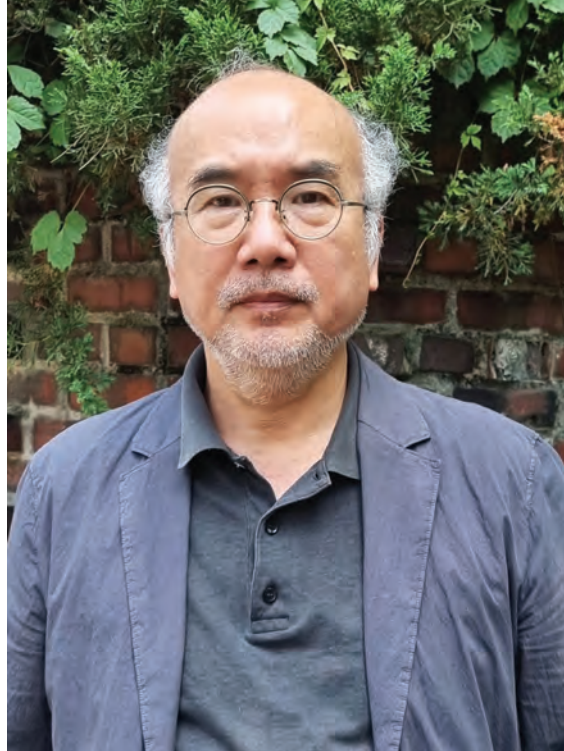
조직위원회의 구조와 형식, 예산 등에 있어서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지역사회 전문가, 사무처 직원, 전시 감독, 국내외 전시 출품 작가들이 최대한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시설을 활용한 문화적 재생 공간뿐만 아니라, 부산문화재단, 부산연구원, 부산시립미술관, 복합문화공간 F1963 등 지역의 전문가와 문화 공간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가능한 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오늘날 비엔날레가 다루는 주요 담론이나 주제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21세기 국제비엔날레의 담론과 비평적 흐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탈식민주의부터 인권 문제나 불평등과 소외로부터 인류세와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세계 질서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최근에는 컬렉티브 형식의 집단적 연대와 행동주의, 그리고 지역과의 협력과 유대관계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전 지구적인 상황과 지역적 특수성을 어떻게 잘 해석하고 풀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비엔날레의 초기부터 꾸준히 관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내 비엔날레 초창기부터 국고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 꾸준히 참여해 왔고,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는 대부분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부산비엔날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많은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도 제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비엔날레가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재단법인 형태의 안정적인 재정 구조와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 덕분입니다.

부산비엔날레가 부산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6년 부산비엔날레의 경우 방문객이 전시공간이 있는 사하구와 을숙도의 생태 지역, 영도 지역, 남포동, 광복동 원도심을 경험하고, 가능한 체류를 연장하여 부산시립미술관이나 센텀시티가 있는 해운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도시와 문화적 경험을 확장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엔날레 행사뿐만 아니라 부산의 핵심 지역을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온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직력과 예산이 필요해 적극적인 실현이 어려웠습니다. 희망사항이지만, 전시 감독이 결정되면 예술로 도심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진행_정리_정혜주

무대 뒤 피아노 음률音律의 조력자

피아노 조율사 강규찬

- 고신대학교 음악과 졸업
- 러시아 조율협회 그랜드피아노 수료
- 일본 야마하 기술학교 그랜드피아노 수료
- 스타인웨이 리빌드 부문 수회 연수
- 산업기사(국가공인1급 조율사)
- 독일 골드마이스트 리클라우스매츠 스타인웨이 리빌드 부문 개인 사사
- 제50회 부산음악상 공로상 수상
- 현) 부산문화회관, 김해문화의전당, 영화의전당, 부산학생문화예술회관 전속 조율사

음악가에 대한 꿈과 진로의 전환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그는 평소 음악 청취를 즐겨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컸다. 생활 속 트로트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노래의 순서를 기억하고, 테이프가 해질 정도로 많이 들었다. 뭔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특유의 성격으로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트럼펫을 시작하고 자연스레 음악과 예술 분야에 집중하게 됐다. 고신대 음악학과에 진학 후 트럼페터로서 꿈을 키우지만, 대학 졸업 후 창원·울산 시향 등에 낙방하면서 연주자로서 표현력과 기량의 한계를 느끼며 방황기를 겪었다. 이후 생계를 위해 부산진구 양정동에 자리한 목화악기에서 악기 판매업에 아르바이트하게 되는데, 줄곧 음악학도의 길을 걸던 그는 음악 진로의 큰 기로에 서게 되는 계기를 맞는다. 악기를 단순히 판매하는 반복된 생활 속에서 기존 음악가로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던 것이 사

라지게 되자 공허함을 느꼈지만, 여러 악기사로 옮기고 다양한 조율사를 만나면서 그로 인해 조율사의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우연히 그들의 논쟁과 토론에 참여하게 됐다. '조율'은 단순히 기술자의 기계적 세팅만이 아닌 감성적 표현의 영역이 존재하며, 이것이 기량으로 표현되고 연결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여러 고민 끝에 피아노 조율을 본격적으로 배우기로 결심하며, 피아노 조율사로 진로를 전향한다. 먼저 전반적인 기술과 기초이론 체계 입각을 위하여 수소문을 통해 한국의 조율사협회 세미나를 접하고 여러 조율사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는다. 이후 일본의 야마하 기술학교에서 '조율', '조정'을 깨우치고, 러시아, 독일 아카데미에서는 '소리'에 대한 음악의 세계관을 습득한다. 유학 이후 한국에서는 다시 피아노 조율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로 이직하며, 일과 함께 악기 조율·복원 기술 등 기본 프로세스를 정통한다. 수면시간을 제외

한 모든 시간을 피아노 조율에 할애하고 10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며 조율사로서 자격과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는 트럼페터를 그만둔다는 결심을 한 순간부터 다음에 무언가 직업을 택했을 때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쉽지 않은 일련의 행적들은 그가 얼마만큼 음악에 대해 열정과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피아노 조율사로서 소리의 교감

피아노를 조율하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음정을 결정하는 ‘조율(튜닝)’, 건반의 무게감을 조절하는 ‘조정(에프터 터치)’, 음의 색깔을 정하는 ‘정음’이다. 특히 ‘조정’은 손끝에 오는 감각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조율사에게 소리의 구현에 대한 의미는 피아노를 성악과 국악의 발성법에 따라, 연주자가 좋아하는 소리에 따라 맞추는 것에 충칭적 의미가 있다. 원래는 지정된 소리가 존재하지만, 공연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맞는 최적점을 찾는 과정이 조율이다. 연주자가 성악 또는 현악기 반주로 하느냐 등의 협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조율’의 일반적인 인식은 음정을 조절하는 기술이라고 치부되기 쉽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많은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공연을 위한 연주자와 조율자에게 정음의 정의는 미술로 비유하자면 투명 도화지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그리고 그 위에 자신만의 색깔을 쌓아 올리는 과정과 같다. 강 조율사는 연주자와 조율자는 조율 간 괴리감을 줄이고 상호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피아노를 조율하면서 제가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정에서 틀린 것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결과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주자는 본인에게 맞는 최고의 형태와 색깔을 찾아 이를 적용하고, 조율사는 교감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위한 재료를 선별해 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피아노 조율사의 현실과 미래

강규찬은 현재까지 10여 년간 부산문화회관 전속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고,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과 부산의 대학교 공연장도 관리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경력이 쌓여 올해 초 (사)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에서 제50회 부산음악상 공로상을 받게 됐다. 전속 기간 중 그의 손을 거친 피아노로 공연한 피아니스트를 나열하자면 대중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을 비롯해 수없이 많다. 그는 현재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악기사’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명의 고객도 찾지 않았지만, 그만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입지를 다졌다. 조율사 양성의 활성화를 꾀하는 새로운 목표를 언급할 때는 사뭇 고조된 어투의 느낌이었다. 현재 사회와 음악계를 깊이가 없어진 자극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며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그는 순수 음악이 주는 차분함과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끝없는 조율에 대한 열정과 음악적 시각에 입각한 언급이 부산 음악 현장에 서서히 스며들어 결국엔 새로운 반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본다.

글 인물사진_백근영





현의 울림으로 가르치고 연주하다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악과 석사 졸업
- 미국 피바디음악원 GPD 졸업
- 서울청소년교향악단 악장 역임
- KBS 교향악단 단원 역임
-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상임악장 역임
- 포항시립교향악단 초빙객원악장 역임
-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 및 객원악장 역임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악장 역임
- 뮤즈앙상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예술총감독
-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역임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교수이자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예술 총감독으로 활약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바이올린을 잡은 지 어느덧 60년을 훌쩍 넘겼지만, 그는 여전히 '현역'으로 무대에 선다. 음악가이자 교육자, 연주자로 살아온 그의 삶에는 잠시 멈추는 쉼표보다 연주의 시작을 알리는 높은음자리표가 더 잘 어울린다. 언제나 새로운 무대와 만남을 향해 나아가며, 끊임없이 소리를 만들어 온 그의 일상은 마치 한 곡의 연주처럼 쉬 없이 이어져 왔다. 악보처럼 음표로 빼곡히 채워진 그의 시간은 늘 분주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바이올린과의 첫 인연

임병원 교수의 삶은 자연스레 음악으로 연결되었다. 아무래도 그의 아버지인 작곡가 임우상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

했다.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가르쳤던 임우상 작곡가는, 한국 작곡계에 굼직한 흔적을 남긴 음악가이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임병원은 여섯 살에 바이올린을 처음 손에 쥐며 음악과 가까워졌다.

그는 대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처음부터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피아노를 먼저 접해보기도 했지만, 의외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바이올린은 지탱하는 손과 연주하는 손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현악기 특유의 울림에 강하게 끌려 자연스럽게 깊이 빠지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6살 때 시작한 바이올린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드러냈다. 대구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는, 타 학교인 계성초등학교에

서 열린 '계성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중학생이 된 뒤에도 지역 내 주요 콩쿠르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는 누구나 그렇듯 진로의 갈림길에 섰다. 공부도 잘했기에 한때 의대를 꿈꾸기도 했지만, 결국 마음은 다시 음악으로 향했다. "공부를 선택했다면 아마 의사가 되었을 것"이라며 웃은 그는, 결국 바이올린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음악의 길을 택했다고 전했다. 애정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음악을 그만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음악을 그만둔다는 건...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그의 삶에서 음악은 떼어낼 수 없는 일부가 되어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 부친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의 양해엽 교수와 연락이 닿았고, 서울로 올라가 직접 테스트를 받은 끝에 합격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후 양 교수에게 사사하며 음악적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3년 동안 서울과 부산을 꾸준히 오가며 열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간 결과, 1978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에 입학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음악은 지금처럼 보편적인 진로가 아니었고, 악기를 전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종종 편견과 의문에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늘 자유로웠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음악이 맺어준 직업과 독주회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함께했기에, 군 복무도 군악대에서 하게 되었다. 대부분 관악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군악대에서, 현악기 전공자인 그는 주로 편곡 업무를 맡았다. 편곡에 능했던 데에는 작곡가였던 아버지 임우상 교수의 영향도 컸다. 군 생활의 끝자락,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다. [KBS 교향악단]의 신입 단원 오디션이 열린 것이다. 그는 군인 신분으로 오디션에 응시했고, 당당히 합격했다. 합



격 소식을 전해 들은 동기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해 줬다며, 임병원 교수는 당시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엔 그 순간의 감격이 여전히 살아 있는 듯했다.

KBS 교향악단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는 대학원 공부도 병행했다. 졸업 과제로 독주회를 준비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데, 교내 극장에서 한두 번 연주로 끝나기엔 너무 아쉽다.' 그렇게 시작된 독주회는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세월이 흐르며 총 26회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이후 경성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하며 KBS 교향악단 활동은 내려놓았지만, 독주회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음악학부 교수로서 연구 대신 공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정기적으로 독주회를 열 수 있었다는 점도 큰 행운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기 독주회를 단순히 연례행사로만 치르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더하고 싶었다. 그래서 매년 두 차례 열리는 독주회 중 한 번은 국내, 다른 한 번은 해외에서 공연하는 체계를 구상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것을 꾸준히 실현해 나갔다.



경성대학교 현악합주

첫 해외 독주회 무대는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이었다. 뉴욕에 거주하던 지인의 도움으로 성사된 공연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독주회를 열었다. 그는 특히 일본에서의 경험이 인상 깊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드물던 유료 공연 문화가 일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공연을 감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술과 관객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 독주회를 열 기회가 줄었지만, 그는 “기회만 닿는다면 언제든 무대에 다시 서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에는 여전히 연주에 대한 열정과 설렘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임병원 교수의 공연은 독주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교단에 선 이후에도 다양한 오케스트라 활동과 겸직을 통해 앙상블 무대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수석 단원을 거쳐,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초빙 객원악장을 역임하는 등 그의 연주 경력은 수십 년에 이른다. 그러나 임 교수에

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독주자로서도,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꾸준히 다양한 레퍼토리를 탐색하며 음악의 경계를 넓혀왔다. 직업 오케스트라에서의 경험은 보다 정교한 연주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배움은 다시 교육으로 이어졌다. 무대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생생한 경험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작용했다. 그에게 연주는 단지 무대 위의 일이 아닌, 교육의 뿌리를 이루는 살아 있는 체험이었다.

연주자이자 교육자

경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지도 어느덧 수십 년이 흘렀다.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는 모습을 볼 때면, 누구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하지만 임병원 교수는 단순히 음악적 기교만을 전하는 스승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태도, 음악을 대하는 진심, 그리고 연주와 연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까지 함께 고민해 주는 진정한 멘토다. 그는 오랜 시간 교단에 서며 제자들에게 몇 가

지 중요한 가르침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중 첫 번째는 ‘악보를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다. 그는 연주의 가장 기초는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지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선 빠른 연습보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악보를 읽고 익히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반복이 결국 기량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실제로 임 교수는 과거에 하나의 악보를 하루에 열 번씩 읽으며 연습했다고 말한다. 그에게 음악은 감성의 표현 이전에, 철저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예술이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다. “포기한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오디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직업 오케스트라 입단에 실패한 제자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와 포기를 고민했다고 한다. 임 교수는 단호하게 포기를 만류하며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을 권했다. 결국 그 제자는 또 한 번의 시도 끝에 입단에 성공했고, 감사 인사를 전하러 다시 찾아왔다고 한다. “요즘 직업 오케스트라는 평균 10번 정도 도전해야 겨우 한 번 합격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 한 번에 붙었을 뿐이에요.” 그는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지금도 치열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젊은 음악인들을 독려하고자 했다.

지역을 넘어, 세계와 겨루는 음악인

지역 음악계를 오래 지켜본 그는 이제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점점 진입하고 있기에, 부산 음악계 역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클래식 음악이 더 이상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닌, 이미 대중화의 길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관객들의 기대 수준 또한 자연스럽게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부산 출신’이라는 지리적 한계나 지역성에 안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음악인들은 지역 무대뿐 아니라 전국, 나아가 전 세계 음악인들과 실력으로 경쟁해야 하며, 이는 이미 국내 직

업 오케스트라에 외국인 단원이 점점 늘고 있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력으로 뽐습니다. 이제는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아요.” 그는 지역 출신이라는 이점에 기대기보다는, 각자 스스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말한 것처럼, 악보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 읽고 기본기를 끈기 있게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세가 있다면,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생의 다음 악장을 준비하며

60년 넘는 세월 동안 바이올린을 놓지 않고 살아온 임병원 교수에게, 바이올린과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나 취미를 넘어 삶 그 자체이자 가장 오랜 동반자였다. 그는 언제나 연주자이자 연구자였고, 동시에 교육자로서 후배 음악인들을 꾸준히 이끌어 왔다. 예술이 시대와 함께 진화하듯,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음악 인생을 살아왔다.

“연주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연주와 교육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었다. 그 두 가지 모두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며, 언제나 제자들에게 먼저 실천하는 모범이 되기를 자처했다. 임병원 교수는 곧 교수직 퇴임을 앞두고서 오는 8월 7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자신이 총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인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의 28번째 정기연주회를 통해 퇴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무대는 결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장일 것이다. 다음 무대가 그에게 좋은 인상을 안겨준 비엔나가 될지, 또 다른 해외가 될지, 아니면 국내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임병원 교수의 음악과 도전정신은 그 어디에서든 여전히 살아 숨 쉬며, 찬란한 선율로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글 인물사진 박준영

No. 42

첫대

박희선

아이 엄마가 병상에 있습니다. 혼자 애
셋 키우다보니 난전 장사 안하면 살길이 없애
서. 거친손도 입술도 파르르 땀니다. 깎아줄 벌
금에 귀를 곤두 세웁니다.

아이 셋은 아저고 앓습니까, 이웃 할매한테
라면 두어개 사드리고,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합
니다. 다음엔 더리고 오세요. 그 장사해서 말바나...

높은자리에 앉아 있는 판사가 그런 말을 하
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눈물도 앓다
는 법정에서 굶다시 흘린 눈물, 오늘도 내 잣
대는 아무자게 환방 먹었습니다.

작가노트 | 어느 날 법정에서. 나는 이 날 만큼 따뜻한 세상을 읽은 적이 없다.

글_박희선 (사)부산문인협회『문학도시』주간, 부산여성수필문인협회, 부산불교문인협회 고문

RE: VIEW

- 무용** 국제적 협력 강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부산국제무용축제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_ 김혜라
- 미술** 권상인의 '불타 20상도二十相圖' _ 정혜주
- 미술** 레디메이드Ready-made 속 재현된 인류의 성찰적 표상 김정명 'Yellow Line, 천인의 얼굴' _ 백근영

국제적 협력 강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부산국제무용축제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글_김혜라 춤비평가

무용축제가 유의미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경험을 기반으로 인식이 확장되는 예술 분야는 정량적인 잣대로 결과를 진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손쉽게 참가국 수치로 국제교류의 성과를 진단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도 ‘국제’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축제가 많고 특히 지역의 경우 로컬리티를 표방하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부산국제무용제(BIDF)의 최근 발전상이 주목할 만하다. 21회를 맞는 오래된 축제나 2022년부터 신은주 감독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부산이 세계로 연결되는 플랫폼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체 프로그래밍으로 국제교류 역량을 키우고 있는 점이다. 두 번째로 부산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해외로 진출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만의 로컬리티를 강화하는 축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주체적인 프로그래밍으로 국제교류 역량 강화

부산국제무용제의 트레이드마크인 바다를 배경으로 춤추는 무대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에서 공공성을 지향한 축제로 의미가 있으나 그럼에도 전문적인 프로덕션의 결여로 예술적 측면에서는 서울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다시 말해 해운대 갈라 공연은 다국적인 춤문화를 선보이는 다채롭기만 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주최 측은 축제의 방향성을 새롭게 구상했다. 해변 특설무대는 시민들을 위한 버라이어티한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며 동시에 예술성이 담보된 전문적인 전막 극장 공연을 병행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해외 무용단의 경우 서울 공연을 주로 하고 다음 부산 같은 지역을 순회하곤 했다. 따라서 주최 측은 직접 해외 단체를 유치하며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으로 선회했다. 프랑스 에르베쿠비컴퍼니Compagnie Hervé Koubi, 헝가리 리시스켈컴퍼니Recirquel Cirque Danse by Bence Végi와 세계드현대발레단Szed Contemporary Dance Company이 아시아 초연으로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시민들의 예술적 바람을 채워주었다.



일련의 작품들은 역동적인 움직임이 구현하는 감각적인 경이만이 아니라 문화적 포용성을 실친한 작품들이다. 이를테면 에르베쿠비의 <낮이 밤에 빚진 것 What the day owes to the night>(2023)은 이슬람의 수피댄스, 무술, 스트리트 댄스가 융합되어 혼종된 춤문화의 정수를 보였다. 리시스켈컴퍼니의 <솔루스 아모르 Solus Amor>(2024)는 곡예적 서커스와 현대춤의 결합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이 조화로운 작품이라 평가하고 있다. 세계드현대발레단의 <카르미나 부라나 Carmina Burana>(2025)도 웅장하고 익숙한 칼 오르프의 칸타타에 비극적인 사랑을 입힌 현대발레다. 비교적 클래식 춤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힙합, 서커스 같은 대중적 장르나 이질적인 문화색이 결합한 컨템퍼러리 작품 시연은 시민들의 안목을 확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부산 지역 인재 발굴로 해외 진출의 플랫폼 역할

3년째 이어온 해외 초청 공연과 함께 올해는 프랑스와 공동 제작한 <노 매터 No Matter>와 <하얀 밤 Nuit Blanche> 작업 과정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부산시와 칸시 양국의 교류를 통한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작년부터 1년여간 '부산국제안무가캠프'에서 에르베쿠비와 한국 무용수들이 만나 양국을 오가며 레지던시와 쇼케이스 발표를 통해 완성되었다. 2023년 초청된 에르베쿠비의 작품(<낮이 밤에 빚진 것>)이 스트리트 춤의 진화된 한 모델로 유의미했다면, <노 매터>는 여성 자신

싱가포르 <난양의 색깔>



한국 김용걸 댄스시어터



의 해방을 선언하는 전사들의 퍼포먼스로 강한 영감을 주었다. 록과 사이키 조명의 스펙터클에 힘입은 생동감 있는 무대였다. 반면 부산에서 2주 만에 완성한 <하얀 밤>은 몽환적이고 초현실적 이미지로 댄서들의 또 다른 표현 가능성을 보게 했다. 두 작품은 여성의 무의식적 탐험과 미래지향적 의지가 대비되며 진취적인 여성 파워를 입체적으로 실감하게 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부산 지역의 무용가들이 공동 창·제작에 대거 참여하며 모든 진행 과정을 경험한 점이다. 아마도 미래의 예술가로 성장할 이들에게 풍성한 자산이 될 것이다. 두 작품은 11월 칸 무용 페스티벌(Festival de Danse-Cannes Côte Azur)에 초청되어 초연될 계획이다. 전국적인 문제나 청년들이 서울로 집중되며 지역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구조적 문제를 목도한 신 위원장이 부산국제안무가캠프를 열어 창작자 발굴에 공을 들인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

해변 특설 공연이 남긴 과제

공식 초청된 해운대 특설 공연(6.7일)에는 한국의 창무희, 시나브로 가슴에, 프로젝트 S, 김용걸댄스시어터, 시스템 온 퍼블릭 아이, 김숙자 춤 보존회, 최은희와 춤패 배김새, 최호정 댄스 프로젝트가 참가했다. 외국팀으로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필리핀,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칸 로제타하이라워 주니어 발레단이 함께했다. 자연 친화적인 바닷가 현장에서 관객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다. 4시간이 육박하는 공연임에도 이동 없이 착석한 관객들의 관심과 지지가 의미심장하다. 그만큼 이 축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가 있음을 방증한다. 특별히 국내 팀 중 김용걸댄스시어터의 <바람>이 바다와 가장 결이 맞는 작업으로 가야금 선율에 몸을 실은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듀엣이었다. 젊은 에너지로 충만한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군무도 짜임새가 있었다. 외국팀

한국-프랑스(부산-간) 공동 협력 창제작 프로젝트 <하얀 밤>



헝가리 세계드현대발레단 <카르미나 부라나>



중 댄스 양상블 싱가포르의 <난양의 색깔>이 싱가포르 문화와 전통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준 모범적인 공연이었다. 2005년부터 이어온 바닷가 특설 공연은 장소특정형에 적합한 부산에서만 가능한 기획이다. 그렇기에 해운대 특설무대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제도 남긴다. 바다라는 공간Space을 배경 삼는 것만이 아니라 플레이스Place라는 장소성과 관계를 맺는 작품 발굴이 필요하다. 기존 작품을 축약해서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파도와 바람, 빛과 어둠, 모래와 사람들이 어우러진 장소에 적합한 작품도 기대해 본다.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글로벌한 축제로의 도약

공식 프로그램 못지않게 특별부대 프로그램인 부산의 전통춤과 소리를 대표하는 마당 공연(수영민속예술관)과 공연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찾아 나선 적극적인 행보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산의 대표적인 '수영야류' '동래학춤' '동래고무' '수영 지신밟기'는 특히 축제에 참여한 해외 관계자에게 부산만의 특별한 유산을 알린 효과적인 기획이었다. 부산시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렉처 퍼포먼스('춤과 떠나는 세계여행')로 진행된 공연도 이탈리아, 싱가포르, 프랑스팀들의 춤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이해를 도왔을 것으로 짐작한다.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하여 예술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부산국제무용제만의 특별한 기획은 교육적으로나 민주적인 예술감상 측면에서도 장려할 만하다. 부산시 기관의 지원과 주최 측의 열정으로 부산국제무용제가 4년여만에 국제교류의 활로를 열어 부산 지역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부산국제무용제가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글로벌한 축제로 도약한 것이다.

권상인의 ‘불타 20상도二十相圖’

글·정리_정혜주 예술부산 편집기자

권상인의 ‘불타 20상도二十相圖’¹⁾는 인도 불교 미술의 전통적 도상체계를 창의적으로 확장한 현대 도예 연작이다. 인도에서는 간다라를 중심으로 4상도(출생-득도-전도-열반) 또는 8상도(태몽-출생-기예-출가-고행-항마성도-초전법륜-열반)와 같은 불타 생애의 주요 장면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권상인은 이 전통을 바탕으로, 싯다르타 태자의 탄생부터 해탈, 포교, 입적까지의 중요한 순간을 20개의 장면으로 세분화해 도예기법으로 형상화했다. 1993년부터 10년간 인도 전역을 헤매며 각 유적지를 방문할 때마다 시공을 초월해 느낀 태자의 숨결과 모습들이 그의 손에서 흙으로 재탄생했다.

싯다르타 태자의 탄생 봄꽃이 핀 화창한 날에 친정으로 향하던 마야부인이 룸비니에서 보리수나무 가지를 양손으로 올려 잡고 해산하는 순간이다. 현장삼장의 기록에 의하면 태자는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으며, 제석천이 산파 역할을 하였다. 제석천은 무릎을 꿇고 미묘한 천의天衣로 태자를 받았다고 전한다.『대당서역기』 권 제6, 2:11 참고)

싯다르타 태자의 탄생_24×17×20cm



출가
7×22×14cm

출가 어느 여름날 오후에 도착한 카필라성 옛터는 서늘 하늘에서 노을이 눈물겹도록 찬란하게 빛났고, 순록純綠의 들판은 황금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주춧돌 하나 남아 있지 않은 싯다르타 태자의 궁성은 황량한 들판뿐이었다. 카필라성의 위치는 그동안 여러 설이 분분하였으나, 1895~96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Gorakhpur 북방에서 아소카 왕의 석주가 발견되고, 그 뒤 부장품인 고탑古塔과 사리항아리舍利壺가 함께 발견됨으로써 확실시되었다. 사문유관四門遊觀 후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 태자는 어떤 날 밤에 백마를 타고 출가한다.



고행_21×14×13cm

고행 출가한 후 6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도를 이루지 못한 것에 한탄한 태자는 부다가야의 우르빈나 숲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모진 고행을 시작한다. 고행은 점점 식사와 양을 줄여 보리 한 톨이나 쌀 혹은 대마씨 한 알로 연명하고 단식에 들어가므로 마침내 근육은 사라지고 살갗은 등뼈와 배에 찰싹 달라붙고 뼈대만 남는다. 피부 빛갈도 바래어 잿빛이나 먹빛으로 보이므로 살아있다는 느낌조차 없는 상태다. 사생의 기로에서 성도를 위하여 삼매경에 들어가는 태자의 비참한 몸의 형상을 조형화한 작품이다.

금강보좌 『법현전』에 의하면 싯다르타 태자가 해탈한 땅에는 보리수가 있고 그 밑에 반석이 놓여 있었는데, 돌의 넓이는 약 6척이고 높이는 2척가량 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태자는 이 돌에 의지하여 결국 해탈하였다. 법현은 인도에 갔을 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법현전』에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나, 350년 후 630년경 이곳에 도착한 현장은 금강단을 볼 수 없어 한탄하며 오열하였다고 『대당서역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 작품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금강보단을 상상의 세계에 설정하고 싯다르타 태자가 목녀 수자타로부터 양육을 공양받는 장면이다.



금강보좌_25×23×16cm

초전법륜 초전법륜이란 처음으로 설법을 통하여 법의 바퀴를 돌린다는 뜻이다. 석가여래가 도착한 녹야원의 밤, 최초의 법회가 시작되고 하늘에서는 법륜이 회전을 시작한다. 오묘하고 재미있는 태자의 설법을 5인의 불제자가 열심히 듣고 있는 순간의 광경을 상상해 본다.



초전법륜_24×18×18cm



죽림정사 현재 지명으로 라즈기르에 칼란다카라는 죽원竹園이 있다. 대장자인 칼란다카라는 사람은 큰 부호로서 선한 행동으로 찬양받았는데, 석가여래의 설법을 듣고 두터운 신앙심을 가지게 되었다. 태자를 위해 정사精舍를 지어 바쳤다는 죽원을 방문하여 느낀 이미지를 조형화한 작품이다.

죽림정사_17×25×19cm

석가여래 염화미소拈華微笑 입상 영축산 산정에서 석가여래가 법문하기 위해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여래의 손에는 연꽃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얇은 미소를 머금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렇게 몇 초가 침묵으로 흘러갔다. 불타의 미소 띤 침묵의 장면을 염화미소라 하는데, 이 광경이야말로 '법화경'을 한마디로 줄인 상징적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대중은 그 아름다운 광경에 도취되어 있었고, 마하가섭은 연꽃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석가여래 염화미소拈華微笑 입상_19×12×23cm



기원정사
26×25×12cm



기원정사 마가다국 빔비사라 왕 원조 하에 라즈기르에서 죽림정사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불교 교단을 이룬 석가여래는 수닷타의 도움으로 코살라국의 수도인 슈라바스티에 포교를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게 된다. 장자 수닷타가 정사를 짓기 위한 땅을 찾아 헤매다가 코살라국의 태자 제타태자의 땅임을 확인하고 흥정에 들어간다. 수닷타가 그 값을 물으니 제타태자가 말하기를 이 동산 가득히 황금을 갈아 놓는다면 땅을 팔겠다고 말하자 그는 태자의 요구대로 황금을 마차에 싣고 와서 기원정사 터에 깔았다. 그 풍경을 황금바위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해석한 작품이다.

태자의 상천^{上天} 석가여래께서 마야부인이 그리워 33천에 올라가 선 법당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였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 온다. 하늘에 오른 지 3개월이 지나 지상으로 내려오려고 했을 때, 제석천은 온갖 보물로 장식된 층층대를 놓아서 하강하는 것을 돕고 또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고도 전해진다. 33천 하늘세계에는 천궁이 있어 천궁 지붕 위에서 마야부인이 손을 흔들며 이제 막 땅에 도착한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 현장의 『대당서역기』에는 겁비타국^{劫比他國}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재 파르카바드 지역 근방의 상키사라는 마을이다. 현재는 관광객을 위하여 절이 새로 세워졌고, 『서역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쇼카왕의 돌기둥도 사라져 황량하게 버려진 땅이다. 태자가 33천에 있는 천궁에 어머니를 남겨 놓고 속세로 돌아오면서 느꼈을 정서를 생각하며 설화를 조형화한 것이다.



태자의 상천^{上天}_27×23×33cm



마하가섭의 조문
24×19×11cm

마하가섭의 조문 석가여래가 적멸^{寂滅}한 후 전륜성왕의 장례 예의에 따라 금관에 누이고 향나무 장작을 쌓아 화장했지만, 불이 타오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마하가섭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대부중은 모두 놀랐다. 마하가섭이 오백여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아난에게 '석가여래의 존체를 지금도 뵈 수 있나요'라고 물었더니, 아난은 '천첩으로 싸고 중관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얼굴을 뵈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마하가섭이 관 옆으로 다가서자, 석가여래는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밀어서 반갑다는 표시를 하였다. 두 발바닥에는 윤상^{輪相}이 보였다는 전설의 주제를 담았다.

1_20상도는 1_백상^{白象}의 태몽 2_싯다르타 태자의 탄생 3_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4_출가 5_고행 6_전정각산^{前正覺山} 7_금강보좌 8_예초제^{葉草}와 제석천 9_해탈^{解脫} 10_범천관청 11_석별 12_초전법륜 13_죽림정사 14_엄화미소^{拈華微笑} 15_석가여래 엄화미소 입상 16_기원정사 17_태자의 상천^{上天} 18_열반 19_마하가섭의 조문 20_석가여래 최후의 형상이다. 본고에서는 10상도를 소개한다.

레디메이드 Ready-made¹⁾ 속 재현된 인류의 성찰적 표상

김정명 ‘Yellow Line, 천인의 얼굴’

글_백근영 한국화가

부산시 수영구 이월갤러리에서 기획된 김정명 작가의 ‘Yellow Line, 천인의 얼굴’전이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은 사각 액자 속 재활용 캔 위에 표현된 여러 색감의 인물 작품이 4열로 배열되어 있고, 개별공간에는 작가의 아카이빙 영상이 전시되어 있었다. 획일성을 지닌 캔과 액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색감과 얼굴 간의 관계는 그 자체로도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형상은 얼마나 다양하고 새롭게 표현되고 있는가. 김정명의 기획 초대 ‘Yellow Line, 천인의 얼굴’전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재활용 캔에 새겨진 여러 얼굴을 보고 느낀 첫 감정이다. 작품 속 ‘군상群像’은 지난 1999년 대안공간 섬(대표 김정명) 개관 기념 초대전에서 삼백 개를 가지고 첫선을 보였으며, 이후 2000년 10회 개인전에서는 오백 개의 얼굴로 매체적 관계는 「포켓」 시리즈와 연결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편평해진 캔 위의 인물들이 750여 개의 결과물로 이어진다. 모두가 알법한 동·서양의 위인을 비롯해 지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묘사함으로써 관객들의 시선을 직시하게 만든다. 소재인 재활용 캔은 두드러 퍼는 과정에서의 행위적 결과물이자, 노동과 기술의 집약체로 그 자체를 캔버스로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작가는 사물死物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 또한 작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행자의 마음가짐으로 매

일 캔을 다듬고 한땀 한땀 수를 놓듯 작업하고 바른 삶의 결기를 얼굴로 그려나갔다고 고백한다. 전시는 천명에 가까운 얼굴을 그려나간 작가의 결연한 의지와 남다른 의미를 짐작케 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Yellow Line’에 대해서 단어가 주는 상징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작가는 노란색이 주는 시각의 강렬함에 주목했다. 현대사회에서 ‘색色’이 가지는 다각적 의미를 작품에 녹여내고, 색감에 의한 가시성과 심리적 경각심 등을 얼굴에 표상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양극단으로 떨어진 인식의 모순을 작품 속 아이러니로 풀어냈다고 여겨진다. 작품은 선악의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하는데, 이를 통해 관객에게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찌그러진 깡통에 선각자를 넣게 된 발상에 대해서는 그들의 업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쉽게 망각해 버리는 불편한 현상을 건드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치 초개草芥²⁾처럼 잊히는 것을, 갈증 해소를 위해 마신 음료 캔의 버려짐과 동일 선상의 의미로 보고 연민의 시각으로 투영했다. 전시는 작은 크기의 작품들을 한 공간에 최대한 집약하여 배치함으로써 확장된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또 다른 사유적 공간을 제공한다.

작품 제작을 위해 수집된 캔들은 현대사회 속 공산품들



전시장 전경

로 그 외적인 모습에서 인위적이며, 쓰이고 버려지는 폐기물과 같은 존재이다. 이들을 작품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사물의 개념 및 경계를 미묘하게 비틀며 생각의 전환을 환기한다. 그 자체로는 다분히 ‘키치(Kitsch)³⁾’적 느낌을 풍기고, 색감을 활용한 접근은 상상과 관심을 끌 만하다.

“쓸모없는 쓰레기 따위의 죽은 물감 조각들이 나를 통해 다시 꿈틀대 살아나고 있다. 생기를 얻은 인자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부유한다. 여태 보지 못한 기이한 형상들이다. 제각기 아름다운 가능태를 가지고 상상의 세계를 예시해 주니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정녕 ‘하늘의 별을 모아 뿌려놓은 내 마음의 꽃밭’이다.” (작가 노트 中 일부)

김정명은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작품들을 주로 선보이며 주제에 대한 설치 및 퍼포먼스 등 매체적 확장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생각의 원천은 조각가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평면 회화를 공간적으로 또는 입체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이는 구상(構想)의 유연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구현된 이미지는 평면 작품을 입체적으로 또는 여러 복합적인 층위의 개별성 또는 하나로 묶어내는 시도로 보여준다. 작가는 모든 사물은 표현의 재료이고, 이들을 어떻게 본인의 작품 주제에 맞게 체화시켜 쓸 수 있는냐가 예술가로서의 관건이라 말한다. 앞으로의 작품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 계획적 접근의 정형화된 의미의 형상이 아닌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물어나 있는 흔적을 구현하고 싶다고 전했다. 자유로운 관념을 바탕으로 한 그의 예술적 표현의 향연들이 기대된다.

Yellow Line 시리즈



- 1 사전적으로는 ‘기성품’의 뜻이 있지만 마르셀 뒤샹 이후에는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된 단어.
- 2 ‘풀과 티끌’이라는 뜻으로, 쓸모없고 하찮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 일반적으로 ‘저속한, 천박한, 진부한’ 의미로 사용되는 예술 및 디자인 용어로, 미학에서 보기 과장한 것, 저속한 것과 같은 사물을 뜻하는 미적 가치를 뜻한다.

건축과 서예 XIII

한일 외교와 문명의 해상 플랫폼
조선통신사선



261년 만에 오사카 항로 복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연구결과 2018년 복원된 조선통신사 선박이 올해 4월 28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261년 만에 쓰시마, 이키, 시모노세키를 거쳐 오사카에 입항한 뒤 한 달간의 항해를 마치고 5월 27일 귀환하였다. 이번 항해는 조선시대 역대 통신사선 항로 중 가장 거리였던 1764년 계미사행의 오사카 항로를 복원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바닷길 왕복 약 2,000km였다. 이 사업은 부산문화재단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문화교류의 상징적 여정으로 기획되었다. 조선통신사 선박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당시로서는 수상 가옥이자 대형 크루즈선에 해당하는 위엄 있는 구조물이었으며 외교 플랫폼이었다. 배 위의 각각의 방에는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를 담은 현판(懸板)을 설치하였다.

통신사의 여정과 규모

조선통신사의 여정은 한양에서 일본 에도까지 왕복하는 데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었다. 전체 거리는 약 4,000km에 달하며, 일정에 혹서기나 혹한기가 포함되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통신사는 한양을 출발하여 충주, 안동, 경주 등을 경유하며 지역마다 전별연(餞別宴)을 받고, 격군(格軍), 기수(旗手), 노자(奴子) 등 사행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였다. 부산에 도착해서도 즉시 출항하지 않고, 반드시 길일(吉日)을 택하였으며, 출항 전에는 부산 영가대(永嘉臺)에서 해신제(海神祭)를 지내 무사 귀환을 기원하였다. 실제 통신사선은 정사, 부사, 종사관 등 삼사와 함께 역관, 화원, 의원, 약사, 격군 등 약 450~500명이 탑승하는 대형 선단이었다. 역대 최저 인원은 1624년의 300여 명, 최대 인원은 1711년의 500여 명이며, 일반적으로는 400명대가 기본 규모였다.

궁궐을 닮은 외교선박

이 선단은 삼사의 사람이 승선하는 기선(騎船)과 짐을 싣는 복선(卜船)이 한 조를 이루어 총 6척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상 통제사가 관할하는 통영에서 건조되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경상좌수영과 경상우수영에서 분담 건조되기도 했다. 선박의 크기는 삼사의 계급에 따라 달라졌으며, 특히 정사 기선은 윗갑판 길이 30m 이상, 배 폭 9.5m의 대형 선박이었다.

조선통신사선은 당대의 유럽 선박보다도 규모와 성능 면에서 뛰어났다. 100여 년의 시차는 있지만, 15세기 후반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가 길이 18m, 승선 인원 40명인 것에 비해, 조선통신사선은 길이 34.5m 이상, 탑승 인원 70명 이상이었다. 의장도 궁궐 단청과 비단으로 장식하여 매우 화려했으며, 국서를 운반하는 외교선으로서 위엄을 담기 위해 궁궐 건축 양식을 반영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형태의 선박으로,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일본인들 역시 감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응대하는 에도 막부는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통신사가 거치는 번(藩)으로 하여금

최고의 의례를 갖추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1,400여 척의 선박과 1만여 명이 동원되었다.
심지어 17세기 초 쇼군이 통신사 영접에 사용한 비용은 100만 냥에 달했으며, 이는 막부의
연간 수입(76~77만 냥)을 초과하는 수치였다. 이러한 접대는 번국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었다.

조선통신사선의 규모와 외양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헌과 회화 속에 다수 전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국립해양유물연구소는 4년에 걸쳐 정사 기선을 복원하였다.
이 복원선은 길이 34.5m, 폭 9.3m, 높이 5m, 무게 126톤에 달한다.
모델이 된 원형은 1811년 순조년간 마지막 통신사 사행 당시 김이교 정사가 탑승했던 배로,
대마도에서 국서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현판 명칭에 담긴 유교적 질서와 문학적 상징

복원된 조선통신사 정사선에는 방마다 상징적인 이름의 현판이
부착되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부착이 아니라 유교적 공간 배치 원리와
문학적 고사를 반영한 지식 기반의 작명이었다.
공간 배치는 유교 의례 원칙에 따라 “이서위상(以西爲上)”과 “이좌상위(以左上位)”를
기준으로 하여 서쪽과 왼쪽을 상석으로 삼았다.

왼쪽 제1방은 여산재(如山齋)라 하여 정사의 방으로, 험한 바다를 건너
큰 임무를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고요한 산중 재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가다듬는다는 뜻이다. 여산(如山)이라는 말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손비서랭천정기(孫祕書冷泉亭記)」에서 맑은 물을 뿌려 산속의 재실 같다는
‘소쇄여산재(蕭洒如山齋)’에서 따온 말이다.

제2방은 호서각(護書閣)으로, 국서를 잘 보호하고 보관하는 뜻이며,
제3방은 목여합(穆如閣)으로, 일본과 수호를 맺어
백성이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4방 관규당(管窺堂)은 좁은 견식으로 무한히 넓은 바다를 대하니,
겸손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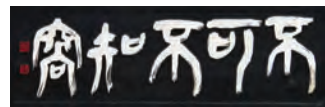
관규(管窺)는 한(漢)나라 동방삭(東方朔)의 대나무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엿보고, 고동 껍데기로 바닷물을 재며,

풀줄기로 종을 치는 격(以管窺天 以蠡測海 以筵撞鐘)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5방 구사재(勾事齋)는 선박 운항과 외교 업무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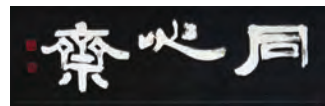
오른쪽 제1방_부용재



오른쪽 제2방_부가부지재



오른쪽 제3방_변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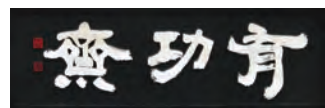
오른쪽 제4방_동심재



오른쪽 제5방_완벽재



오른쪽 제6방_지사각



오른쪽 제7방_유공재

오른쪽 제1방은 부용재芙蓉齋로, 정사의 휴식공간이다.

물 위의 연꽃처럼 바다를 건너 나아간다는 뜻이다.

제2방 부가부지不可不知는 사소한 일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인지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제3방 변치당辨淄堂은 『열자』의 고사에서 따온 표현으로,

치수淄水와 승수灇水의 미세한 물맛 차이도 구분해야 한다는 섬세한 판단을 의미한다.

제4방 동심재同心齋는 상하 관원이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는 의미이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의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자를 수 있고, 같은 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二人同心其利斷金 同心之言其臭如蘭)’에서 유래하였다. 제5방 완벽재完壁齋는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하고

귀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사기』 「염파인상여열전」의 ‘완벽귀조完壁歸趙’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

제6방 지사각駐槎閣은 한나라 장건처럼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서 국사國事를 수행한다는 뜻이며,

제7방 유공재有功齋는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다.

조선통신사선_해양미래문화유산으로 발돋움

이 현판의 글씨들은 (사)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협회 이사장 지현 박외수가 집필하였으며,
판각은 김성명 장인이 담당하였다. 서체는 해서, 전서, 예서로 구성되었으며, ‘재齋’가 6개, ‘각閣’과 ‘합閣’이
각 3개, ‘당堂’이 3개 배치되었다. 동일한 한자를 반복하지 않고, 글씨마다 변화를 주어 다채로운 서예적
표현을 구사한 점이 특징이다. 갑판 정면에는 황칠장 구영국이 ‘조선통신사선朝鮮通信使船’이라는 표제를
집필하였고, 금빛 황칠로 찬란하게 장식하여 선박의 위엄과 화려함을 한층 부각시켰다.

당시에는 현판이 서예 예술 그 자체보다는 선박의

상징성과 공공 인식 제고를 위한 시각적 식별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조선통신사선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

해상 문화외교 플랫폼이자 미래문화유산으로서

진취적인 외교적 역할을 새롭게 수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에 못지않게 조선통신사선은

일본에 전해진 최초의 해양 한류이자, 한국이 동아시아

해양외교의 주체로 나섰던 상징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선_황칠장 구영국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산위원
자료 제공_홍순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박사

부산에 '최고액 상금' 내건 국제마라톤대회 창설 검토를

기원전 490년 고대 그리스 시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보낸 그리스 원정군이 낙소스-델로스 섬을 정복한 뒤 아테네까지 집어삼키기 위해 아티카의 북동 해안에 있는 마라톤 광야에 상륙했습니다. 마라톤 광야가 아테네에서 30여km 떨어진 곳이니, 그리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급히 1만의 중장(重裝) 보병을 이끌고 전장에 나선 아테네 장군들은 마라톤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포진한 뒤 기회를 엿보다 총공세를 펼친 끝에 페르시아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 6,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테네군의 피해는 고작 전사 192명이었습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둔 뒤 전령 페이디피데스는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곤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를 외친 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전령 페이디피데스를 기리는 뜻에서 ‘마라톤 광야’의 지 역명을 딴 ‘마라톤’이 1986년 아테네 올림픽 정식 종목으 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승전의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리고 또 달렸던 페이디피데스의 정신이 2,386년 만에 인류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의 정식 종목 이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페르시아 후예국인 이란이 마라톤을 금기시하고 있다는 말이 퍼져 있지만, 사실과 다릅 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한 이란 선수 가 결승선을 몇 발짝 앞두고 탈진으로 쓰러진 뒤 기어서 결 승선을 통과한 사실이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전령처럼 생명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러너가 심장마비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마라톤은 역사이자 꿈이요, 땀이며 의지이고 환희입니다. 마라톤은 축제이고 산업이며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마라톤이 스포츠 축제와 산업 차원을 넘어 도시 이미지까지 끌어올리는 호재가 된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세계의 큰 도시들은 저마다 ‘국제마라톤 대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마라톤 선수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마라토너들 사이에서는 ‘WMM(World Marathon Majors)’ 시리즈로 불리는 ‘세계 7대 마라톤대회’가 그것입니다. 마라톤 애호가들은 죽기 전에 보스턴 마라톤Boston Marathon, 런던 마라톤London Marathon, 베를린 마라톤Berlin Marathon, 시카고 마라톤Chicago Marathon, 뉴욕시 마라톤New York City Marathon, 시드니 마라톤Sydney Marathon, 그리고 도쿄 마라톤Tokyo Marathon 등에서 뛰고 싶어 하는 ‘꿈의 주로走路’로 여깁니다. 심지어 많은 애호가는 ‘WMM 시리즈 완주’라고 답할 정

도죠. 이유는 이들 대회가 예사롭지 않게 운영되기 때문입 니다. 도시마다 전 시민이 톨톨 뭉쳐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데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 협력을 통해 프로·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최고의 경쟁 무대를 선사합니다. 그럼 보스톤 마라톤부터 들여다보죠. 1897년부터 매년 4월 3주 차 월요일(애국자의 날)에 열리는데, 올해로 그 역사가 128년이나 됩니다.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영감을 얻어 이듬해에 대회가 창설되었으니 마라톤 단일 대회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WMM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손꼽힙니다. 매년 3만여 명이 참가하는데, 대회 기간에는 50여만 보스턴 시민들이 총 출동되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필자도 그랬지만 마라톤 애호가라면 누구나 보스턴 마라톤 참가를 꿈꿉니다. 그러나 모든 러너가 이 대회에 출전할 순 없습니다. 보스턴 대회에 출전하려면 일반 대회에 참가해 ‘기준 기록’(18~34세 남성 2시간 55분~여성 3시간 25분, 50~54세 남성 3시간 20분~여성 3시간 50분, 60~64세 남성 3시간 50분~여성 4시간 20분, 80세 이상 남성 4시간 50분~여성 5시간 20분 등) 안에 들어야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1947년 대회에서 18 일이나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간 서윤복 선수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고, 1950년 대회에서는 함기용과 송길윤, 최윤철이 1~3위를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대회(98회)에선 황영조가 2시간 8분 9초로 결승선을 통과해 당시 한국 최고 기록을 수립했고, 2001년 대회에선 이봉주가 영광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다음은 런던 마라톤입니다. 멜버른 올림픽 장애물 경기 금메달리스트인 크리스 브래셔의 주도로 1981년 창설된 런던 마라톤은 매년 4월 셋째 주 토요일 영국의 수도 런던 일원에서 펼쳐지는 메이저 대회입니다. 매년 4만 명이 넘는 러너가 주로를 꼭 메우는 장관을 연출하며 그리니치 공

원을 출발, 템즈강을 따라 버킹엄 궁전 앞 구간의 편도 코스를 달립니다. 런던 마라톤은 ▲세계 최고의 기록이 나오게 하여 영국 마라톤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 인류에게 화합된 장을 만들기 위하여 ▲런던시의 위락시설 증진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런던시의 관광 증진을 위하여 ▲전 세계 이벤트 행사 중 영국이 최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갈등이 많은 전 세계에 행복과 성취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 '뚜렷하고도 숭고한 대회 목표'하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런던 마라톤은 자선모금 행사를 통해 엄청난 자선기금을 모은 뒤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도 유명합니다. 1974년 호르스트 밀데가 서베를린의 작은 지역 대회로 시작한 베를린 마라톤은 1981년 대회 때 베를린 시내 코스로 변경된 뒤 전 세계 러너들이 몰려들면서 국제대회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는 이 대회가 동서 베를린을 가로지르는 코스를 통해 통일 독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평탄하고 직선 구간이 많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코스'로 세팅되어 있어 세계 기록 경신의 무대로도 유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남자 마라톤 세계 기록이 이곳에서 경신되었으며, 엘리우드 킵초게Eliud Kipchoge는 2018년 대회에서 2시간 1분 39초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시카고 마라톤은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을 배경으로 달리는 짜릿함을 선사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러너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매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뉴욕 마라톤은 매년 5만여 명이 참가해 스타트 아일랜드, 브루클린, 퀸스, 맨해튼 등 뉴욕의 유명한 지역을 달린 뒤 세계 최대 도심 공원인 센트럴 파크에 마련된 결승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회 구간 곳곳에는 수많은 시민이 도열, 열정적으로 응원을 펼치기 때문에 러너라면 누구나 이 대회 참가를 버킷 리스트

트로 꼽을 정도입니다.

2025년 7번째 WMM의 목록에 포함된 호주 시드니 마라톤은 매년 8월 마지막 일요일에 개최되며, 아름다운 도시 시드니의 구석구석을 마음껏 누비고 다닐 수 있습니다. 출발은 노스 시드니의 밀러 스트리트이고, 결승선은 호주의 상징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마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 도쿄 마라톤입니다. 다른 메이저 대회에 비해 훨씬 늦은 2007년에 달을 올린 도쿄 마라톤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WMM의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이 대회 참가자 정원은 38,000명인데, 2011년 대회 때부터 시작한 자선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차원에서 자선 목적의 참가자 몫을 비워놓습니다. 도쿄시청을 출발한 주자들은 니혼바시, 아사쿠사, 긴자, 시나가와 등 도쿄의 유명한 곳을 두루 경유한 뒤 도쿄역에 마련된 결승점을 통과해야 완주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취재기자 시절, 빽빽한 취재 일정 속에 잦은 술자리로 인해 건강을 크게 망가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거주할 때인 2000년대 초 초여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술기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 주변을 맨 둘다 부근 고교 운동장으로 발길을 옮겼고, 주민 대여섯 명이 운동장을 빙글빙글 돌고 있기에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섯 바퀴를 돌았을까? 숨이 턱에까지 차올라 걸어야 했지만, 놀라운 신체적 변화를 체험합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가 싶더니 분초를 다투어서 숙취에서 벗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 달리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날을 계기로 달리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1km, 3km를 뛰고 5km도 너끈하게 뛸 수 있었죠. 그렇게 달리는 거리를 늘려나가다 광안대교 위를 뛰는 마라톤대회 10km 부문에 출전, 48분에 주파했습니다. 달

리기를 통해 점차 건강을 되찾았지만, 필자 역시 ‘달리기
의 중독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6년여에 걸쳐 밀양, 경산,
고성, 거제, 진주, 마산, 울산, 경주, 서울, 춘천 등 전국 각
지에서 열리는 하프(21.0975km) 및 풀코스(42.195km) 대회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기간 40여 차례 풀코스를 완주했고,
2006년 10월에는 미사리 경정장에서 열린 국제울트라마
라톤 대회(100km)에 출전, 12시간 51분 22초 동안 달린 적
도 있습니다. 오전 6시에 출발, 멕시코와 프랑스 등 각국에
서 온 남녀 선수들과 10km 코스를 10바퀴를 돈 뒤 오후
6시 51분 22초가 되어야야 경기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라톤(42.195km)은 단번에 완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
다.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엄청난 연습량을 소화해야 완
주 메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극한을 견디는 체력과 강
인한 정신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라토너들은 왜 고
대 그리스군의 전령이 40km를 뛰고 그 자리서 절명했는
지를 압니다. 국제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려면
해당 지자체와 시민, 기업 등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각 도시가 국제마라톤대회를 유
치하려는 걸까요? 우선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베를린, 보스턴 등 도시는
마라톤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
다. 또 건강하고 안전하면서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
여줄 수 있고 특유의 문화 다양성도 뽐낼 수 있습니다. 그
래서인지 런던 마라톤이나 보스턴 마라톤이 ‘도시브랜드
의 반열’에 올라 있을 정도입니다. 마라톤은 또 관광 활성
화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참가자들은 대회
를 소화하기 위해 2~3일간 체류해야 하고, 가족까지 동반
하면 체류비용은 2~3배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숙박, 음
식, 교통, 쇼핑 등 직접적인 소비 효과가 따라붙습니다. 서

울국제마라톤은 315억 원, 뉴욕 마라톤은 4억 달러 규모
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려면 도로 정비와 대중교통 편의시
설 확충, 치안 강화 등 도시환경 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
집니다. 또 자원봉사와 응원, 기업의 스폰서십 참여 등을
통한 시민 참여와 도시공동체 강화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
고요. 아울러 WAGL(World Athletic Gold Label)과 같은 국제 인
증 획득 시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대형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고지 선점이 가능합니다. 부
산에서 비행기로 불과 2시간여 거리에 있는 도쿄시. 이 도
시는 영리하게도 마라톤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제마라톤
대회를 창설함으로써 도시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려 놓았
습니다. 외국인 대회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도쿄의 환
대와 친절함, 조직의 정교함과 질서, 코스의 매력과 도시
풍경에 감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라톤에 폭
박져 있었고, 마라톤의 위력을 절감한 필자는 부산시청을
출입하다 2000년대 초 타지 근무 발령을 받고 떠날 때 부
산시장실을 방문, 건의서 한 통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막 시
작한 도쿄 마라톤이 큰 성공을 거뒀는데, 시민 화합과 도
시 마케팅 차원에서 부산도 세계 최고액의 우승 상금을
지급하는 대형 국제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면 대박 날 것
같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대답을 듣지 못했습
니다. 필자의 판단으로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통상적
인 국제대회 우승 상금은 1억 5천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이 주는 ‘부산 마라톤대회’가 창
설된다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구름처럼 몰려오지 않을
까요? 후발 주자이니 일단 상금을 내세우는 것도 전략입
니다.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부산, ‘마라톤 이벤트’를 통해
도시 위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글_심수화 언론인 칼럼니스트

부산예총 2025년 제4차 이사회 개최

2025. 5. 22.(목) 오전 10시 30분 부산예술회관 한울집



부산예총 제4차 이사회가 5월 22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는 오수연 회장, 김인숙 수석부회장, 강종관(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 부회장, 권성은(부산음악협회 회장) 부회장, 조성범 감사, 윤종국 감사, 부산건축가회 김두진 회장, 부산국악협회 강명옥 회장, 부산무용협회 남선주 회장, 부산문인협회 박혜숙 회장, 부산미술협회 최장락 회장, 부산연극협회 이정남 회장이다. 4차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부산예총 기획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진행 보고 ▲부산예총 기획 '2025 부산예총 갈매랑축제' 진행 보고 ▲부산예술회관 기획 '제14회 젊음의 축제' 진행 보고 ▲2025 부산전국체전 연계 문화예술축제 '부산아트빌리지' 진행 보고가 이어졌다. 2025년 제4차 이사회 안건으로는 ▲제24회 부산예술상 및 예술문화 공로상 변경의 건이 상정, 통과됐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부산예술상 시상부문에 특별상이 추가된다.

제32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부산국악대전' 개최

2025. 8. 9.(토) 부산예술회관



국악의 저변 확대와 전통 계승을 위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국악 인재를 발굴해 온 제32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부산국악대전'이 오는 8월 9일 부산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기악, 무용, 타악으로 진행되며, 참가자격을 학생부(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개인과 단체), 신인부(비전공자로 만 19세 이상의 개인과 단체), 일반부(전공자로 대학생 포함 만 19세 이상 개인)이다. 경연방법은 초등부·중등부·신인부는 단심제, 고등부·일반부는 예선, 본선, 결선의 3단계로 진행된다. 학생부 수상자에게는 내년도 청소년국악제에 공연 기회가 주어지며, 일반부와 신인부 수상자는 부산국악축제에 참가할 수 있다. 일반부 종합대상 수상자에게는 자격 충족 시 대회 심사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신문사, 국악신문, 부산국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이메일(busangugak1961@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이다.

문의 051)644-5211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부산시민원드오케스트라 <감성 더한 즐거운 음악회>

2025. 6. 11.(수)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6월 첫 번째 공연은 [부산시민원드오케스트라]의 <감성 더한 즐거운 음악회>이다. 올해 '문화가 있는 날' 최다 관객 수 310명을 기록하며, 공연장은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가득 찼다. 이번 공연은 배일환 지휘자의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소프라노 신진범과 테너 장원

상, 기타리스트 배서완이 협연했다. 자크 오펜바흐가 작곡한 「지옥의 오르페우스(Orphée aux Enfers, 천국과 지옥)」를 시작으로, 6월의 테마가 있는 리처드 워트컴 장군을 기리는 「평화의 나팔 소리」와 「Mattinata」 「고향의 노래」 「에델바이스」 까지 잘 짜인 레퍼토리로 편안한 공연을 선보였다. 관객과 함께 부르는 노래 「과수원길」 「섬집아가리」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앙코르곡 「아리랑」을 마지막으로 감동을 전하고 예술로 일상을 나누는 따뜻한 무대를 장식했다. 부산시민원드오케스트라는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해 2013년 결성했으며, 부산 음악의 발전과 후배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5 점심버스킹 in Madang 세레나데 아트컴퍼니 <뮤지컬 갈라쇼 Welcome 2025> · 베니앤 <Classical 사랑고백>

2025. 6월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무대



세레나데 아트컴퍼니



베니앤



《코마》

7. 15.(화) ~ 7. 24.(목)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2시, 5시 / 일 오후 3시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몸이 불편한 엄마를 모시고 산속 별장에서 생활하는 여자 백혜령. 거친 눈보라가 불어오던 어느 날, 한 남성이 불현듯 찾아온다. 남성의 간절함에 결국 혜령은 문을 열어준다. 하지만, 시종일관 말을 더듬는 남수와 무언가 숨기는 듯한 두 모녀는 서로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연극은 주인공들을 통해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현대 자본주의 사고방식과 물질만능 사회 속 병리 현상을 인간관계에 집중하고 이에 대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공연을 통하여 현실 속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의 010-2970-2874



BUSANGRAPHIE 2025 ‘도시-CITY’

6. 26.(목) ~ 7. 15.(화)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

갤러리 스페이스 포포

BUSANGRAPHIE 2025 ‘도시-CITY’는 로컬리티와 크리에이티브를 모토로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탐구하는 사진 축제이다. 올해 첫 오픈을 맞이하는 이 축제는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을 깊이 있게 포착하여, 로컬의 역사·문화·사회적 관계를 사진으로 풀어낸다. 로컬리티는 각 지역이 가진 특유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다루고, 크리에이티브는 이를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진지한 탐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공간의 본질을 탐색하고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변화를 사진으로 접해보길 추천한다.

문의 010-8558-0026



광복80돌맞이 기념전시 ‘독립하는 광복’

6. 10.(화) ~ 7. 27.(일)

민중공원 기획전시실

민중공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역사와 기억을 예술로 풀어낸 ‘광복 80돌맞이 기념전시-독립하는 광복’ 전시를 개최했다. 이는 민주 정신을 기념·계승하고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다. 광주, 부산, 울산의 지역 작가들이 ‘광복’을 주제로 공동의 역사적 키워드를 공유하고, 현장 탐방과 워크숍을 통해 문제의식을 나누며 발전시킨 작품이 주를 이룬다. 아카이브 자료와 역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광복’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풀어내고 사유한다. 본 전시를 통해 역사 속 아픔과 투쟁, 희망의 기록을 되새기고 현재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의 051)790-7482



시간의 경계선에서 민훈기 / 다솜출판사

시인의 6번째 시집이다. 삶과 죽음, 멈춤과 흐름, 상실과 부활. 모두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결국 '시간의 경계' 위에서 맞닿는다. 이 시집은 그 경계선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에서 비롯됐다. '끝과 시작이 하나되는 자리 너머에서/잃어버린 나를/다시 만날 수 있을까?('시간의 경계선에서,' 부분)' 시에 담긴 이 질문은, 상실을 겪은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기도이기도 하다. 마라도 성당, 부활절 등 깊은 개인적 기억과 종교적 상징이 시 전체를 관통하며, 이 시집은 내면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마주하려는 존재의 여정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흐릿했던 기억과 감정은 시인의 언어 속에서 다시금 선명한 색을 되찾는다.



변화의 시작 김선경 / 지식과감성#

칠순을 넘긴 저자의 두 번째 수필집이다. 전작 『불멸의 명화』에 이어, 이번 책에서는 사계절의 풍경과 가족 이야기, 여행 에피소드 등 삶의 소소한 순간들이 천연덕스럽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담겼다. '글의 행간에 어설프고 풋내 나는 이야기들이 가책도 없이 천연덕스럽게 널브러져 있다'는 저자의 말처럼, 책은 꾸밈보다 진심에 가까운 문장들로 채워졌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에는 과거(어머니), 현재(아내), 미래(손자)의 이야기가 유쾌하면서도 묵직한 감정으로 흐른다. 중수필의 이론적 틀보다는 '재밌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남기고자 했다는 고백은, 이 책이 지닌 진솔한 매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일상을 돌아보며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웃음과 위로를 건네는 수필집이다.



살구꽃이 필 때면 차달숙 / 예인문화사

송운 차달숙 작가의 열여덟 번째 작품집이다. 첫 작품집 『마음 따라 달라지는 인생살이』를 낸 지 26년, 문학이라는 길 위에서 그는 여전히 펜을 들고 있다. 그간 17권의 작품집을 펴내며 '짧은 필력에 주눅 들고, 글에서 도피하고 싶던 순간도 많았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그를 지탱해 온 것도 문학이었다. "문학 없이는 내가 없으며, 문학은 나의 진정한 친구요, 나의 인생 자체라고 대답하려면"라는 독일 시인 릴케의 말을 인용하며 작가는 다시금 글을 쓰는 이유를 되새긴다. 병원 신세를 지며 생의 끝자락을 마주한 경험까지도 문학으로 매듭짓고자 하는 간절함은 이 책 전반에 잔잔히 흐른다. 이번 작품집은 작가의 문학 인생의 보고서이다.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월간『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700,000 (천)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700,000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500,000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500,000
· 표4 (뒷표지) 마감!	1,000,000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 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월간『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저음
바

2025

걷다가
만나는
대스킹

in Madang

바 X 킹

4 ~ 9월, 매주 수요일 12:00 ~ 13:00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무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의 숨은 명소 **다대포**(아미산 전망대)

부산의 서쪽 끝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은 드넓은 백사장과 갈대밭,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합니다. 아미산 전망대에서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내려다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껴실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자연의 콜라보, 부산

강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갈매기와 철새가 함께 나는 곳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기다린 끝에 맞이하게 되는

해와 강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낙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대포만의 풍경을 연출하죠.

부산이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대포라는 작품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을 사랑합니다' 광고는 BNK부산은행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 구성된 홍보모델 'B-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촬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정가 5,000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